metro®
메트로 2015년 1월 12일 월요일 제3133호 www.metroseoul.co.kr

Life p/15



청양의 해 대세 컬러 '블루'

Entertainment p/19



'썸'만 타다 끝나는 청춘들

이재용 마침내…



이재용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가 어닝쇼크를 피하며 예상밖의 호실적을 기록해 일단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합격점을 받았다. 시험대에 올랐던 '이재용호'가 깜짝 실적으로 선방했지만 안정적인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된다는 차원에서 갈길은 멀다.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어닝쇼크'(예상보다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를 면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예상 밖의 좋은 실적으로 '체면'을 살렸지만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면에 계속>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배우 곽동연 "영화 꼭 하고 싶어요" p/18

기로에 선 삼성전자…이재용 리더십 시험대에

부친 이건희 회장이 일군 반도체로 버텨
스마트폰 대체할 새 먹거리 확보가 관건

<1면에서 계속>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시가총액은 20.1%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위기는 한국경제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시장의 걱정은 작년 2분기와 3분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느냐였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액 52조, 영업이익 5조 2000억원 4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휴대폰 부문의 부진에도 반도체 부문의 업황이 좋아지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마냥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205조4800억원)이 2013년(228조6900억원)보다 줄어 2005년 이후 9년 만에 역성장을 경험했다. 게다가 반도체는 경기 순환 사이클을 심하게 타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미국 대선이나 올림픽 등 4년 주기로 부침을 거듭한다. 삼성전자는 1996년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으로 내려가자 전년보다 매출액이 떨어졌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한 1993년부터 2014년까지 22년간 삼성전자가 매출 역성장을 기록한 해는 1996년, 2001년, 2005년과 2014년을 포함해 모두 4차례 있었다. 2013년 분기당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던 것과 비교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삼성전자 작년 4분기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회복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을 들여다봐야 삼성전자 실적 추세를 알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반도체가 실적 호전을 견인했지만 1분기는 반도체 비수기다. 스마트폰이 살아나지 않으면 분기 영업이익 10조원은 다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증권사들이 예측했던 ▲영업익 4조원대 ▲매출 40조원대 라는 어닝쇼크 수준의 위기에 휘말리지는 않았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부문이 다소 부진했지만 반도체 부문에서 3조원 가까운 영업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이같은 실적이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시즌 이슈'에서 비롯된 부분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4분기 가장 큰 효자 역할을 한 반도체의 경우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을 평정한 상황이다. 즉 이 부회장의 리더십과 큰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연말은 전통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몰리는 시기다. 크리스마스, 블랙프라이데이, 졸업·입학 등 이른바 대목이 즐비하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모바일 부문에서 빠른 개선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샤오미, 화웨이, 레노버 등 중국의 복병 탓에 삼성의 중저가 스마트폰의 판매가 부진했고 노키아 등 과거의 맹주들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중국와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에 29달러(약 3만원) 스마트폰을 속속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5'에서 최대 사이즈 110형을 포함해 105형, 88형, 85형, 65형 등 SUHD TV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 전시장에 다양한 종류의 SUHD TV가 전시돼 있다. /삼성전자 제공

오는 4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야심작 '갤럭시S6'를 출시하지만 애플의 아이폰6가 버티는 프리미엄 카테고리에서 파이를 얼마나 가져올 지는 미지수다.

그렇기 때문에 올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이재용 부회장 리더십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최대 관문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퇴진이 유력했으나 이 부회장의 신임을 얻어 유임된 신종균 삼성전자 모바일부문 사장이 옛 영광 도전에 나선다. 모바일 부문은 2011~2013년까지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70%를 책임졌다.

갤럭시S6가 성공하고 시설을 확장한 베트남공장에서 중저가 휴대전화를 시나리오대로 만들어 팔기만 한다면 모바일부문은 다시 삼성전자의 핵심이 될 수 있다.

'1분기 비수기'라는 악재가 항상 따라다니는 반도체 부문 역시 호조세가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경기 평택에 세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하고 최소 15조원을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이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 가동을 예고한 만큼 '규모의 경제'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이 부회장이 진두지휘한 한화그룹과의 방산·화학산업 빅딜, 제일모직(옛 에버랜드)과 삼성SDS의 상장 등 그룹내 주요 결정에 대한 과실이 1분기 전후에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 2015'에서 주목받은 양자점 TV인 SUHD, 스마트헬스·스마트홈 등이 주축인 사물인터넷(IoT), 삼성전자의 기기를 하나로 묶는 OS '타이젠'은 이 부회장이 생각한 '삼성전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국내외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훈기자



배식봉사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대구 북부정류장 무료급식소에서 떡국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사 인사

◇신매체준비위원회 국장대우	오필승	△글로벌IT부장	이국명
◆편집국		△문화스포츠부장	김민준
△산업부장	김종훈	△정치부장(직대)	송병형
△생활유통부장	염지은	△사회부장	정영일

朴 대통령, 인적쇄신 할까

오늘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힌다.

집권 2년차인 지난해 초에 이어 두 번째 회견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최근 불거진 국정난맥상과 관련해 쏟아지는 '인적쇄신' 요구에 어떤 답을 박 대통령이 내놓느냐다.

지난해 말 정국을 뒤흔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동 이후 여권에서조차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출된 데다 지난 9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사태'가 터지면서 쇄신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최근까지만 해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신년 회견에서 인적쇄신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박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인사에 부정적인데다 검찰 수사에서 '측근 3인방' 등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의 예기치 않은 항명 파문을 계기로 박 대통령에 대한 인사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나 개각은 많은 인적 수요가 발생하고 인사 검증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적 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항명 파동에 유감을 표명하고 공직기강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거나 향후 인적 개편과 청와대 내부 시스템 정비 등을 약속하는 수준의 언급만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와 관련,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정동영, 새정치연합 탈당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인 정동영 전 의원이 11일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재야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야권 신당에 합류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고민 끝에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나 '국민모임'의 시대적 요청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이 참여한 '국민모임'이 지향하는 합리적 진보 정치, 평화생태복지국가의 대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들을 넘어서 새로운 큰 길을 만들라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며 "이 길만이 정권 교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로,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봉사를 이 길에서 찾겠다"고 말했다.

국민모임은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 명진 스님 등 각계에서 명망과 인지도를 갖춘 인사 100여 명이 참여했다. /조현정기자

의정부 화재 '골든타임' 놓쳐 참사 키웠다

오토바이 발화 후 주민신고까지 11분
6분 후 소방차 도착땐 이미 아수라장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는 발화 후 17분이나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대형 참사로 번졌다.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11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13분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 우편함 앞에 4륜 오토바이가 주차됐다.

운전자는 1분 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오토바이에서 화염이 보인 것은 오전 9시 15분 40초.

이로부터 5분여 만인 오전 9시 22분 4륜 오토바이가 화염에 휩싸이고 바로 옆 2륜 오토바이로 옮아 붙었다.

이내 큰 불길이 일면서 출입구 옆 주차장으로 번졌고 내부는 검은 연기로 가득찼다.

CCTV는 이로부터 4분 뒤인 오전 9시 26분 꺼졌다.

최초 화재 신고는 이 시각 입주민에 의해 112상황실에 먼저 접수됐다.

또 다른 입주민이 1분 뒤인 오전 9시 27분 119상황실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관련 기관에 상황을 전파했다.

4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은 112 신고까지 10분, 119 신고까지 11분이나 방치됐다.

출입구가 건물 안쪽에 있는 구조라 건물 앞을 지나던 시민도 불이 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소방 선발대는 신고 접수 후 6분 만인 오전 9시 33분 현장에 도착했다. 최초 발화 후 무려 17분이나 지난 뒤다.



1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연기에 그을린 자국들이 어제의 참혹했던 사고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뉴시스

수사본부와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이 가연성 건축자재로 마감 처리돼 17분간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건물 4동과 주차타워, 주택 등이 불에 타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했다. 11명은 중상을 입어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후, 첫 신고 전 10분 사이에 건물 출입구로 누군가 한 명만 지나갔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부상자에게 치료비를 우선 지급보증하고 생계비를 가구당 최대 154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1일 "이번 화재는 개인 건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지만 치료비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선지급한 뒤 관련법에 따라 추후 건물주 혹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민을 대상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비 등 긴급지원이 실시된다. 안 시장은 "예금구좌가 확인되는 대로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최소 63만8000원부터 최대 154만원까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세준기자 skang715@metroseoul.co.kr



화천 산천어축제 이틀째 '인산인해'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에서 열리는 '산천어축제'가 개막 이틀째를 맞은 11일 많은 관광객이 얼음낚시터를 찾아 산천어를 낚으며 겨울 추억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유가 하락 후폭풍…물가 전망 1%대로 낮추나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2.4%(담뱃값 인상분 제외)로 봤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0% 내외로 하향 조정하고, 경제성장률은 3.9%에서 3.6~3.7%로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1.8%), 국회예산정책처(1.7%), LG경제연구원(1.4%) 등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을 1%대로 내다봤다.

한편 한은은 디플레이션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보다 새 물가안정목표 설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은 한은이 저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하고 있다.

유가가 떨어지면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 주체의 구매력이 커지는 동시에 물가를 떨어뜨려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높아진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들은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9 달러까지 하락하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르고, 물가상승률은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작년 초 배럴당 100 달러가 넘었던 두바이유 가격은 1년 만에 47 달러선으로 반토막 났다.

정부가 두바이유의 연평균 가격이 배럴당 75 달러인 것을 전제로 올해 물가가 2.0% 상승한다고 예측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물가상승률은 1%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은이 물가 전망을 한꺼번에 대폭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이 높아질 수 있어 한은이 전망치를 2% 안팎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기미가 없으면 한은이 상반기 중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유가가 낮은데다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통화완화를 단행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한은이 올해 1·4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봤다.

/윤경용기자 consrab@

공기업 정부지분 매각 시 43조 조달

부실한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43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재원조달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부채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공기업이 부채를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공공기관 분야를 꼽고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 수준을 달성토록 하는 등의 공공기관 정상화와 부채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경연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민간 기업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일부 공기업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부채를 스스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대주주 자격(51% 이상 보유)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주요 공기업 지분매각으로 4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잠식상태의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철도공사를 뺀 6개 비상장 공기업의 지분매각만으로 42조7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2개 상장 공기업의 지분을 팔아도 2000억원의 재원이 나온다.

보고서는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주요 공기업의 수익성(영업이익률), 안정성(부채비율), 유동성(현금흐름)이 민간 기업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들 공기업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3.2%로 대기업 4.7%, 제조 대기업 5.6%에 미치지 못했다. 또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의 존도 역시 공기업은 177.2%로 대기업 31.5%, 제조 대기업 24.5%에 비해 높았다.

/박성훈기자 zen@

수방사, '1·21 사태 상기 대국민 참여 행사'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1·21 사태 상기 대국민 참여 행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볼 수 있는 'Remember 1·21 사진전시회'와 국민이 직접 무장공비들의 침투로를 걸어보는 '나라사랑 걷기 대회'로 나눠 실시된다.

사진 전시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KTX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진행된다. 나라사랑 걷기 대회는 17일 경복고등학교에서 출발해 서울도성 성곽길 '창의문~삼청공원'에 이르는 5km 구간에서 실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이 행사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2013년부터 국민의 나라사랑 마음 함양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과 참가가 가능하다.

테러의심자 급증해 '파리 테러' 못 막았다?

프랑스내 지하디스트 200명 추정…여성 용의자 행방 묘연

'프랑스 테러'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테러 징후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시민 17명과 인질범 3명 등 총 20명의 희생자를 낸 프랑스 정보 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가 하면 테러 규탄 시위에는 무려 70만 명의 시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성 테러 용의자 한명의 행방이 모연한 것으로 알려져 프랑스 국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프랑스 정보 당국이 사살된 테러 용의자 3명에 대한 사전 정보가 충분했지만 연이은 테러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지적했다.

프랑스 경찰과 정보 당국이 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용의자인 쿠아치 형제와 예멘 알카에다의 연관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셰리프 쿠아치는 2008년과 2010년 파리 지하철 폭탄 테러범의 탈옥을 도우려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바 있다. 사이드 쿠아치도 2011년 예멘에 머물며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에서 훈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 동부 유대인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사살된 테러 용의자 아메디 쿨리발리 역시 2010년 셰리프와 함께 지하철 폭탄테러범의 탈옥을 돕는 등 이미 쿠아치 형제와의 관련성이 밝혀진 상태다.

프랑스 정보 당국의 이같은 실수에 대해 미국 당국의 한 관계자는 "프랑스 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갈수록 늘어 쿠아치 형제에 대한 감시 강도를 낮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시리아, 이라크 등지의 극단주의 세력에 합류한 자국민 1000~2000명 중 약 200명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4개국 정상 테러 규탄 시위

파리 연쇄 테러 용의자 중 유일하게 생존한 하야트 부메디엔(26)의 행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AFP 등에 따르면 부메디엔은 지난 8일 동거남 쿨리발리가 파리 남부 몽루즈에서 여성 경찰관 1명을 총으로 살해할 때 함께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쿨리발리가 다음날 파리 동부 유대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일 당시 부메디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작고 가냘픈 여성이 프랑스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쫓기고 있는 인물이 됐다'며 부메디엔의 현상 수배 사진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70만 명이 넘는 프랑스 시민들이 참가한 테러 규탄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AP연합뉴스

한편 프랑스 전역에서 총 7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길거리로 나와 행진하면서 테러 희생자를 애도하고 테러를 규탄했다. 11일 파리에서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등 34개국 정상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테러 규탄 시위가 열린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교황님 등번호는 5번 프란치스코 교황이 10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교황청 평의회 '코르우눔'(Cor Unum·한마음)과 교황청 라틴 아메리카 위원회가 아이티 지진 5주년을 맞아 마련한 개인 알현 자리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축구 운동복을 선물로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가난하지만 사랑받는 우루과이 대통령

5년간 월급 87% 기부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으로 불리는 호세 무히카(79·사진) 우루과이 대통령이 '기부천사'라는 또 다른 별명을 얻었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무히카 대통령은 전날 우루과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 지난 5년간 자신의 월급 가운데 일부인 40만 달러(약 4억3644만 원)를 정부의 서민주택 건설 사업에 내놓았다고 말했다.

무히카 대통령의 월급이 1만 400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47%를 이 사업에 기부한 셈이다. 무히카 대통령의 기부행보는 이것만이 아니다. 자신이 속한 중도좌파 정당 프렌테 암플리오(Frente Amplio)와 사회단체에도 5년여 동안 30만 달러이상 내놓았다.

이 덕분에 무히카의 재산목록에는 허름한 농장과 1987년형 하늘색 폴크스바겐 비틀, 트랙터 2대, 몇 대의 농기구만 올라 있다.

무히카의 이같은 선행에 국민들은 영광적인 지지로 화답하고 있다. 무히카는 2009년 11월 대선 결선투표에서 5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오는 2월 말 퇴임을 앞둔 현재 지지율은 이보다 높은 65%다.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는 "무히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마리화나 합법화와 낙태의 제한적 허용, 동성결혼 인정 등을 주도해 빈곤 감소와



노동 기회 확대, 환경 보호에 노력했다"며 "최근 우루과이 서점가에서는 무히카의 전기 '조용한 혁명'(La Revolucion Tranquila)이 베스트셀러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밥 대신 쥐 잡아먹는 노인

metro HongKong


順德老人專食老鼠

廣東順德七旬老人楊金友，捉鼠和吃鼠經驗已十幾年，他吃過的老鼠「數也數不清」。他用煙熏鼠洞，「看到煙變黃色時，就知道洞內有老鼠了。如果洞口噴出的是白煙，那就知道該洞無老鼠了。有人説老鼠很髒，其實老鼠是很愛乾淨的。」

▲廣東順德七旬老人楊金友

쥐를 잡아 먹는 노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광둥성 포산시에 사는 70세 노인 양진유(楊金友)에게는 독특한 취미가 있다. 바로 '쥐 잡기'. 이 노인은 십여 년간 쥐를 잡아 먹으며 살아왔다. 그동안 잡아 먹은 쥐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그는 동네에서 '쥐 잡기 달인'으로 불린다.

지난 6일 양씨가 길가에 있는 풀밭에서 삽을 들고 연기를 피우자 곧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집 근처에 나와서 쥐를 잡는다는 그는 이날도 솜씨를 발휘했다. 그는 마른 풀을 구해온 뒤 불을 붙이고 쥐구멍 입구에 놓았다. 이후 그물 자루로 다른 구멍들을 막고 연기를 구멍 안으로 흘러 들게 했다.

양씨는 "연기가 누런 색으로 변하면 안에 쥐가 있는 것이다. 구멍에서 하얀 연기만 나오면 쥐가 없다"고 말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500g 정도 되는 쥐 한 마리가 다른 구멍에서 튀어 나왔다. 그는 삽으로 구멍을 파서 쥐 꼬리를 잡아 올렸다.

이러한 방식으로 쥐를 잡은 지는 10년이 넘었다. 그는 쥐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가서 쥐를 잡으며 이웃들로부터 쥐가 많은 곳을 소개받기도 한다. 양씨는 "쥐들은 구멍파기를 좋아한다. 구멍이 그리 깊지 않으면 삽으로 파서 쥐를 쉽게 잡을 수 있다"며 쥐의 활동 법칙을 완벽히 파악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렇다면 잡은 쥐는 어떻게 할까. 놀랍게도 쥐는 말린 뒤에 먹고, 많으면 친구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그는 "10년 넘게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쥐가 더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쥐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다. 영양에 좋다"고 밝혔다.

/정리=장윤희기자

에어아시아기 한인 희생자 시신 확인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자바해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희생자 3명 중 2명의 시신이 확인됐다.

AP·AFP 등에 따르면 11일 인도네시아 재난희생자확인팀(DVI)이 박성범(37)씨, 이경화(36)씨 등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의 시신 신원을 확인했다.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로 가다 추락한 사고 여객기에는 박씨 부부와 11개월된 딸 유나양 등 한국인 일가족 3명이 탑승했다.

인도네시아 수색 당국은 이날까지 사고 여객기 탑승자 162명 중 48명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이중 시신 32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국명기자

스크립터? 현장과 편집실의 '징검다리'

사람이야기

■ KBS1 대하드라마 '징비록' 스크립터 박소현



한 편의 드라마가 완성되기 위해선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주·조연 배우부터 메가폰을 잡고 있는 감독, 대본을 쓴 작가, 카메라팀, 조명팀, 음향팀 등 수십명의 스태프까지. 그리고 이들 중엔 스크립터가 있다. 다음달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KBS1 대하드라마 '징비록'의 스크립터 박소현(28)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현장과 편집실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라고 설명했다.

◆ 낯선 그 이름, 스크립터

KBS2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2008)은 PD, 작가, 배우 등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인물들의 관계와 심리를 밀도 있게 담아 시청자와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한 드라마의 A팀 감독과 B팀 감독, 카메라 감독과 연출의 신경전 등 시청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드라마의 숨은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도 스크립터는 등장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죠. 감독이 '큐'를 외치고 촬영되는 중에 지시하는 모든 것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장면 뒤에 저 장면이 연결되게 해달라'고 지시한 것을 대본에 모두 적어둔 후 편집실에 전달하는 게 제 일입니다. 가끔 감독이 NG를 낸 컷을 편집실에서 마음에 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컷을 감독이 왜 NG라고 했는지 이유도 다 적어둬야 하죠."

스크립터는 감독 옆에서만 일하지 않는다. 특수영상팀과 크로마키 촬영을 할 때도 그곳에 가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모두 기록한 후에 편집실에 전달한다. 드라마에 옥에 티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한 스크립터의 몫이다.

"대본이 나오면 데이라인(날짜별 촬영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미술팀, 의상팀, 소품팀 등과 함께 일을 해요. 만약 오늘 촬영에서 주인공 얼굴에 상처가 나면 이걸 며칠 동안 연결해 촬영할 지를 상의하죠. TV로 봤을 때 상처가 있다가 바로 다음 장면에서 상처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게 바로 옥에 티죠."

◆ 모든 스태프와 함께

스크립터는 드라마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과 함께 일한다. 그 대부분엔 배우도 속한다.

"배우의 동작도 지적해야 해요. 배우가 말하면서 커피잔을 내려두는 장면이 나왔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커피잔을 들고 있으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 대사 다음에 커피잔 내려놨다'고 알려줘야 해요. 드라마에 주인공 전화 목소리만 나오는 장면이 있을 땐 제가 촬영 스케줄에 따라 배우들을 녹음실로 불러서 해당 장면을 설명해주고 녹음을 하게 하죠."

박 씨는 대학에서 연극 연출을 전공, 졸업 후엔 극단에서 잠시 일했다. 이후 FD 보조로 드라마 일을 시작한 그는 현장에서 스크립터를 보고 반해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처음엔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연극은 라이브인데 드라마는 한 장면을 대여섯 번 씩 반복해 촬영하기도 하고 대사 중간부터 찍기도 하니까요. 또 촬영기간 내내 이어지는 밤샘촬영도 힘들어요. 힘들고 지치긴 해도 무척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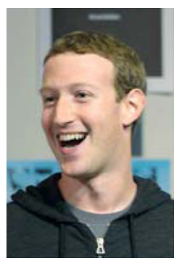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한국씨티은행 시산제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첫 번째 줄 우측에서 일곱 번째)이 선자령 정상에서 산행을 함께 한 직원들과 파이팅을 하고 있다. /씨티은행 제공

"저커버그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타운홀 문답' 진행



마크 저커버그(사진)가 콜롬비아에서 페이스북 이용자 행사를 가진다.

페이스북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오는 14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타운홀 문답'을 연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운홀 문답은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일반 사용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답하는 행사다. 앞서 이 행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 밖에서 개최됐다.

당시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에 '싫어요' 버튼을 만들지 않는 이유와 SNS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밝혔다. 타운홀 문답 행사가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커버그가 보고타에서 타운홀 문답을 하는 이유는 행사 기간에 인터넷 보급 운동단체 '인터넷닷오그'의 회의에 참석하는 출장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페이스북은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마크와의 문답'(Q&A with Mark)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스페인어 또는 영어로 저커버그에게 댓글 형식으로 질문을 남길 수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LG전자·화학 사회적기업 지원

LG소셜펀드 선정 기업 대상

LG전자와 LG화학이 'LG소셜펀드'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지원 활동에 나선다.

양사는 9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사회적경제 주체의 대표 및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LG소셜펀드 네트워킹 워크숍'을 열었다.



LG전자-LG화학 'LG소셜펀드 네트워킹 워크숍'.

'LG소셜펀드 네트워킹 워크숍'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지식 나눔의 장'이다.

LG전자는 사내 노무 전문가를 초빙해 '사회적경제주체, 이것만은 알고 운영하자'라는 주제로 인사노무 강의를 진행했다. 또 정부, 학계, 사회적 경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단과 이전에 지원을 받았던 사회적기업 대표들도 초대해 1대1 멘토링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친환경용품 제조업체 '제리백'의 한승현 대표는 "성공 노하우를 배우고 고민도 나누는 과정에서 지속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LG전자와 LG화학은 올해 3월부터 사회적경제 주체와 일반인 대상 '사회적 경제세미나'도 개최한다. 전문가와의 대담, 분야별 케이스 스터디 등을 진행해 경영현장의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LG전자 경영지원부문장 이충학 부사장은 "LG만의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주체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윤상직 산업장관, '산업혁신 3.0' 격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산업 혁신 3.0'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격려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도 김포의 중소기업 갑산메탈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혁신활동을 격려했다.

'산업혁신 3.0'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중심인 동반성장의 범위를 2·3차 협력사로 넓혀 공정·경영·생산기술 등 기업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1일 오후 갑산메탈㈜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편 윤 장관이 방문한 갑산메탈은 포스코 2차 협력사로 2011년부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원가절감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해 산업혁신 3.0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은행권, 연초부터 '희망퇴직' 칼바람

신한銀 14일까지 신청 받아… 퇴직금 최대 37개월치

주요 은행들이 연초부터 희망퇴직을 통한 '몸집 줄이기'에 돌입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노사는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상, 1969년 이전 출생자인 4급 차·과장, 75년 이전 출생자인 5급 대리에 한해 14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신청을 받아 선발 심사를 거쳐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퇴직자는 전직 창업지원금 1000만원과 희망자에 한해 3개월 동안의 전직지원 컨설팅과 9개월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인력은 제외된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 직원을 시간제 관리전담직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시중은행 최초로 전직지원 컨설팅을 시행해 직원들이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로금 명목의 특별퇴직금은 잔여정년과 직급별로 평균임금의 최소 24개월치에서 최대 37개월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직급이 낮을수록 특별퇴직금은 많아진다.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 2명까지 최대 5600만원을 받거나 중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수에 관계없이 1000만원을 정액으로 받는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건강검진비는 부부 건강검진비 3년치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된 인력은 제외된다.

다른 은행들도 올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희망퇴직을 통해 인적구성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10년 이상 근속 직원에 한해 만 40세 이상의 일반직이나 4급 이상의 과장급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접수한 결과 총 269명의 직원이 오는 21일 퇴직한다. 이들은 월평균 임금 20개월치의 퇴직금과 50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거나 퇴직 대상이 되는 직원이 36명에 달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예년처럼 올해 3월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 대상자 위주의 희망퇴직을 진행해 약 200명이 회사를 퇴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노사가 전담팀을 구성, 임금피크제도 개선과 희망퇴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market index <9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국고채 3년)	환율(원·달러)
1924.70 (+20.05)	572.99 (+6.56)	2.06 (−0.01)	1091.10 (−4.90)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리더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신한금융 제공

"임원이 신한 문화영웅돼야"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경영 슬로건으로 '실천하는 신한, 함께하는 성장'을 제시하며,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11일 신한금융은 지난 9일부터 양일간 경기도 기흥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그룹사 CEO와 임·부서장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신한경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회장은 "직원들의 실천은 부서장이 실천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부서장은 경영진의 실천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신한을 이끌어가는 핵심 축인 임원, 부서장들이 신한 문화의 영웅이 되어달라"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1982년에 출간된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s)'에 나오는 영웅의 개념을 꼽으며 "가치이념을 문화라고 하면 영웅은 이런 가치이념을 구현하는 조직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이 꿈을 꾸면 단지 꿈에 지나지 않지만, 모두가 함께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는 칭기즈칸의 명언을 소개하며 임원과 부서장들에게 직원들의 꿈을 결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아란기자

로또복권 제632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5	18	21	32	35	44	6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432,587,716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0,507,901
3등	5개 숫자 일치	1,596,603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우리은행 임직원, 겨울 바다 입수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강원도 양양에서 이광구 우리은행장(가운데)과 임직원·계열사 CEO 등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맞이 결의다짐 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립 116주년을 맞은 우리은행이 올해 강한은행으로 발돋움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우리은행 제공

신제윤, '하나·외환銀 통합' 해결사될까

6개월여를 끌어온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이 금융당국의 입장에 따라 판결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외환은행과 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참석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신 위원장이 정무위에 출석할 경우 어떤식으로든 답보상태인 하나·외환은행 통합승인 여부가 결정 나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위는 양 은행의 통합에 앞서 "노사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 등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하나금융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들면서 내부에서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금융위는 최근 하나·외환은행 통합 승인의 전제로 내세웠던 '노사 합의' 요건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위원장이 지난해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을 줘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는 뜻을 내비친 점을 고려해 볼 때 조기통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에 오는 정무위 회의에 신위원장이 참석할지 여부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신 위원장은 정무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금융위 소관 법안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이 있어 참석 가능성 또한 대두되고 있는 것.

일단 금융위는 인가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확정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승인절차 단축을 위해 곧바로 본인가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신 위원장이 이날 정무위에 참석해 하나·외환은행 합병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경우 조기통합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한편 하나금융 측은 조만간 금융위에 조기합병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3월 1일 조기 통합을 위해 오는 14일 이사회와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겨울방학 '금융교육' 봇물

딱딱하고 어렵다는 '금융'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금융권이 경제와 금융 교육을 지원하고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과 증권사, 금융당국 등은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과 박물관 안내, 현장 탐방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초등학생과 박물관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던져라 윷! 나와라 금융미션!'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소재 한국금융사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놀이인 윷놀이에 금융을 접목해 유물과 금융 역사에 대해 배워 볼 수 있다.

키움증권은 고객과 자녀를 대상으로 '키워드림 어린이 경제교실'을 개최한다.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리는 경제교실은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놀이와 참여를 통해 금융지식과 경제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부모들을 위해선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대표의 '100세시대 생애설계와 자산관리'특강과 이병훈 에듀플렉스 부사장의 '자기주도학습법' 특강도 함께 마련됐다.

한국은행은 '어린이 박물관교실'을 통해 화폐박물관 견학과 함께 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경제강좌, 화폐관련 소품 만들기 등의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매주 금요일 물가와 금융·경제 동향 및 전망, 각종 통계 해설, 특정 경제분야에 대한 주제로 '한은금요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한은금융강좌'는 선착순으로 지원받으며, 매 수강시 쿠폰 1매를 제공한다. 25매 획득시 한국은행 경제기본 과정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50매 획득시 경제전문과정 수료증이 발급된다. /백아란기자

불안한 글로벌 증시… 金투자 "글쎄"

유가급락, '그렉시트' 공포감 확산…안전자산 부각

국제유가 급락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등의 우려로 글로벌 증시에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궁극의 안전자산인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일각에서 금 가격이 지난 3년간의 슬럼프를 딛고 반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지만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은 금값 추가 하락에 베팅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저물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므로 금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금 가격은 연초 반등하며 기대감을 불러모았다. 금 채굴업체인 뉴몬트마이닝은 5% 치솟으며 대형주 위주의 미 S&P500지수 중 가장 고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금값 강세는 며칠 못 가 주춤한 상태다. 연초 금값 반등엔 그렉시트 등 유럽 지역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지만 그보다 강달러가 더 큰 영향을 발휘하면서 금값은 더 오르지 못하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지난 8일(현지시간) 2월물 금값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2.20 달러 하락한 1208.50 달러에 마감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 수요는 금보다는 달러에 쏠려있다.

이 상황에서 금값을 지지하는 건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시행하리란 기대감이다.

실제로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지난 2005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유로당 1.18 달러 밑으로 추락하면서 통화완화 예상을 미리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이 시중에 돈을 풀어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란 기대감은 금 시장에도 긍정적인 재료다.

유럽 정책 효과를 이유로 금값 하락을 예상하는 대부분의 시장 의견에 반박해 '반등'에 힘을 싣는 전망도 나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금과 금 채굴업체 관련 펀드를 운용하는 에비햄브로라는 펀드매니저는 "ECB가 수개월 안에 경기부양과 디플레 억제를 위해 양적완화를 단행하면 금값 반등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금 가격이 지난 3년간의 슬럼프에서 회복되면서 새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의 풍부해진 유동성에 디플레이션 공포가 높아지면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이 다시 부각될 것이란 시각이다.

금값은 과거 2011년 여름 1900달러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었다가 최근 1200달러 부근으로 40% 가까이 주저앉은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장 시각은 올해도 금값이 부진을 면치 못하리라고 예상하는 편이다. 일각에서는 금 투자에 대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격이라며 경고하기도 한다.

케임스캐피탈의 스테판 존스 CIO와 런던앤캐피탈의 이아인 테이트 펀드매니저는 "금 수요가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순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에 투자하려면 달러화가 아닌 엔화와 유로화를 활용하는 게 낫다는 견해도 나왔다.

'가트먼 레터' 편집장인 데니스 가트먼은 "달러화 강세가 계속될 것이므로 달러화 표시의 금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며 "자국 통화팽창 정책을 펴는 유럽과 일본의 통화가치는 계속 낮게 유지될 것이므로 이들 화폐로 금을 사는 게 낫다"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냄비'와 '프라이팬' 관리법

찐순이 주부 경제학

냄비와 프라이팬은 주방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아이템이다. 하지만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냄비와 프라이팬의 수명을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냄비와 프라이팬, 과연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을까. 재질에 따른 냄비와 프라이팬 관리 요령을 알아보자.

우선 프라이팬의 경우, 코팅이 벗겨지면 수명이 다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처음 구입했을 때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구입 후 프라이팬에 물을 넣고 끓여준 후에 물기를 없애고, 식용유를 소량 넣고 몇 분간 달궈준 후 키친타올을 이용해 닦아준다. 이런 방법으로 프라이팬을 처음부터 길들여 사용하면 더 오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프라이팬은 또 흠집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할 때 실리콘이나 나무 소재의 주걱을 사용해야 한다. 요리의 용도에 따라 2~3개의 전용 팬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요리할 때 고온에서는 코팅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는 짧게 조리한다.

조리 후 남아있는 음식찌꺼기를 쉽게 세척하려면 팬이 식기 전 기름을 둘러 키친타월로 먼저 닦아준 뒤 물로 씻어주면 된다. 생선 등이 팬에 눌러 붙었을 경우 프라이팬을 달군 뒤 소금을 뿌리고, 신문지 등으로 살살 비비듯 닦아주면 금세 깨끗해진다.

스테인리스 소재의 팬과 냄비는 내구성이 강해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관리법이 까다롭다. 새로 구입한 스테인리스 냄비의 경우 물을 한 번 끓인 후에 사용하는 게 좋다. 또 식초를 소량 넣고 강한불에서 끓인 후 사용하면 냄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스테인리스 재질은 고온에서 변색이나 얼룩이 잘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장시간 고온에서 조리하지 않는 게 좋다. 스테인리스 팬과 냄비는 적절한 예열없이 사용했다가는 태워버리기 십상이다. 조리 전에 팬을 충분히 달군 후 물을 한 두 방울 떨어뜨려 보자. 물방울이 끓어져 튀어 오르지 않고, 구슬처럼 뭉쳐져 팬 위를 미끄러지듯 굴러다니면 예열이 잘 된 것이다. 이 때 물기를 제거하고 기름을 둘러 요리를 시작하면 된다. 조리 후에는 프라이팬에 물을 충분히 붓고 식초나 베이킹 소다를 넣어 한참 끓인 뒤 물을 버리고 부드러운 수세미로 싹싹 닦아주면 탄 자국까지 말끔히 없앨 수 있다.

이밖에 내열 유리냄비는 중금속, 세균번식, 환경호르몬 걱정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체에 금이 나거나 흠집이 났을 때는 반드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밀도가 높은 국물이 있는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을 열고 조리해야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내열 유리냄비를 사용한 후에는 세제가 풀린 따뜻한 물에서 부드러운 스펀지로 세척하는 게 좋다. /김민지기자 minji@



홀몸 어르신 위한 '사랑담은 반찬 나누기' 봉사 BS금융그룹은 지난 10일 부산은행 신축본점 인근 지역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성세환 회장을 비롯한 BS금융그룹 임직원들은 본점 직원식당에서 일주일이상 먹을 수 있는 분량의 5가지 반찬을 만들었다. 또 인근 문현2동 지역 200여 세대를 방문해 반찬을 전달했다. /BS금융그룹 제공

日 자본 J트러스트 '韓 저축은행 삼키다'

SC·아주저축銀 인수 막바지…자산규모 8조 넘을 듯

J트러스트가 최근 잇따라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J트러스트는 아주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승인이 나면 인수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J트러스트는 지난해 6월 SC저축은행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같은해 11월 금융위원회의 대부 자산 비중 축소, 대출 금리 인하 등의 심사조건에 맞게 인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아프로서비스그룹을 제치고 아주캐피탈 인수대상자로 선정돼 각 주간사인 아주산업에 인수의사를 전달했다.

이들 인수가 마무리되면 J트러스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친애저축은행(지난해 9월 기준 1조2700억원)을 비롯해 SC저축은행(3400억원)·아주저축은행(7011억원)·아주캐피탈(6조4000억원)을 보유한 국내 자산규모 8조7000억원의 대형 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한다.

J트러스트는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3개의 저축은행 통합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합이 완료되면 이 저축은행은 업계 2위인 HK(2조159억원)를 넘어 SBI(3조8443억원)를 견제할 수 있는 대형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J트러스트저축은행' 혹은 'JT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J트러스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SC저축은행과 아주저축은행의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호명 변경도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 1977년 잇코상사로 출범한 뒤 신용보증, 채권회수 등의 사업 규모를 키운 일본계 업체다.

이후 2005년 일본에서 채권회수 전문 회사인 파르티르, 스테이션파이낸스, 세이코카드 등을 차례로 인수하며 금융권에 뛰어들었다. 국내에는 지난 2011년 네오라인 크레디트대부 주식을 전량 매입한 후 미래저축은행(현 친애저축은행) 인수로 저축은행 영업을 시작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CES 2015 폐막 사물인터넷 가능성 열었다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 현실로
삼성·LG전자 기술 제품 대거 공개

#아침에 일어나 세면대에서 입안을 헹구면 그 내용물을 분석해 건강상태를 담당 의사에게 자동 전송한다. 출근 전 투명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벽이나 창을 통해 뉴스를 보고 액정표시장치(LCD) 창으로 만든 신발장 도어에서 날씨 정보를 접한 뒤 우산을 챙긴다. 또 퇴근 전 냉장고에 저장된 내용물들을 파악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부족한 식재료를 주문한다.

이는 2259년 뉴욕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제 5원소', 2054년을 배경으로 한 '마이너리티 리포트' 등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다. 하지만 영화 속 이야기가 어느 새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지난 9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CES 2015'에서는 영화에서 봤던 지능화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화두로 떠올랐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스마트폰, TV, 냉장고, 자동차 등 IT·전자·자동차 산업이 서로 융합돼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뜻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소니, 엔비디아 등 다양한 업체들은 CES 2015에서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은 '사물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인간 중심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사물인터넷의 핵심"이라며 "다가올 사물인터넷의 시대는 한마디로 사물과 디지털이 함께 나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물인터넷이 자리잡은 세상에선 기기가 더 이상 사람에 의해 실행되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사람을 돕고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이 CES에서 발언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사물인터넷 시대를 대비해 자체 개방형 운영체제(OS)로 개발해온 타이젠을 선보였다.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항할 제3의 OS로 향후 스마트홈, 자동차, 모바일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모든 스마트TV 운영체제에 타이젠을 적용, 생태계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건다.

LG전자도 독자 OS인 '웹OS 2.0'을 공개했다. 이를 기반으로 신체리듬과 가전기기를 연동시키는 '웰니스 플랫폼', 여러 스마트기기를 하나로 잇는 '연결솔루션' 등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승권 LG전자 사장은 "사물인터넷 플랫폼 차별화, 기기 간 연결성 강화, 사물인터넷 생태계 확장 등 개방화 전략을 전개해 사물인터넷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 영역을 차지할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도 대거 선보였다. 지난해 시계형 '스마트워치'로 주목받기 시작한 웨어러블 기기들은 올해 시계가 아닌 안경이나 양말, 신발, 의류 등 일상적인 제품으로까지 확장됐다.

또 소니와 도시바는 안경과 결합할 수 있는 모듈로 구성된 스마트 글래스를 공개, 프리스케일은 애완견의 움직임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목걸이를 선보였다. 쓰리엘 랩스는 신발 깔창 형태의 '건강 체크' 웨어러블 기기를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다. 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제품은 비교적 높은 가격이 책정될 전망이다.

현재 사물인터넷 영역을 차지할 웨어러블 기기로 출시된 스마트워치는 40만원대에 육박한다. 스마트워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즉 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터페이스 구축을 위한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사물인터넷과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가 우리 삶에 혁명을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시대를 이끌기 위해 기술 개발은 물론 제품 상용화를 위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각 기업들이 산업 간의 경계를 넘어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가전 업체는 물론 통신사, 정부도 사물인터넷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 SUHD TV, CES 혁신상 수상 삼성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5'에서 최대 사이즈 110형을 포함해 105형, 88형, 85형, 65형 등 SUHD TV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 전시장에 다양한 종류의 SUHD TV가 전시돼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인텔 5세대 '브로드웰' 노트북 경쟁

제품 크기·발열·전력 소모량 줄여
삼성 LG 레노버 에이수스 등 가세

인텔의 5세대 코어 프로세서 '브로드웰'이 전격 공개되면서 이를 탑재한 노트북들이 국내에서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인텔은 지난 5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5 개막을 앞두고 차세대 CPU 프로세서 브로드웰을 공개했다. 2013년 6월 출시된 하스웰 이후 1년 6개월만에 공개한 5세대 신제품 프로세서다.

더 미세해진 14나노 공정에서 생산된 브로드웰은 22나노 공정에서 생산된 전작 하스웰보다 발열 및 전력 소모량을 낮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더 미세한 공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더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집약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프로세서 연산 능력과 그래픽 처리 성능은 전작보다 향상됐다.

이에 발맞춰 PC업체들 역시 신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한국레노버는 이달 초 브로드웰을 탑재한 'G50-80'(사진)을 옥션에서 단독 출시했다.

이 제품은 인텔 5세대 코어 i7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1TB 저장용량, 4GB 램과 AMD R5-M230 2GB를 제공한다. 또 두께 25㎜에 무게 2.5kg로 휴대성을 높였다. 15.6인치 풀HD LED 디스플레이와 DVD 멀티 드라이브를 기본 탑재해 멀티미디어 감상에도 적합하다. 한국레노버는 이 제품 후속으로 'G40-80' '씽크패드 X1 카본' 'X250' 등 브로드웰을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할 계획이다.

HP는 인텔 5세대 프로세서 브로드웰을 탑재한 HP 파빌리온 15-p 시리즈를 11번가와 옥션 등 오픈마켓을 선보이는 프로모션을 오는 23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브로드웰 i5를 탑재한 노트북의 경우 4GB 램과 저장용량 1TV를 제공한다. i3를 탑재한 제품은 4GB 램과 500GB 저장공간을 지원한다. HP 측은 브로드웰을 탑재하면서 그래픽 성능은 22%, 영상변환속도는 50%, 생산성은 4% 늘렸으며 배터리 수명 역시 1.5시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브로드웰은 아니지만 브로드웰과 같은 14나노 공정을 적용한 M코어를 탑재한 신제품 노트북 '노트북 9 2015 에디션' 이달 중 출시한다.

이 제품에 탑재된 인텔 코어 M 5Y10C는 14나노 공정을 적용해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얇은 노트북에 사용된다는 것이 인텔 측의 설명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삼성·LG전자 "전기 덜 먹어요"

2015년형 에어컨 잇따라 출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에어컨 제품을 전력소비효율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공기 청정기능 강화와 전력소비효율을 갖춘 2015년형 스마트에어컨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에어컨 Q9000은 초미세먼지 PM10과 PM2.5, 가스를 감지하는 '트리플 청정 센서'와 'PM2.5 필터시스템' 등을 갖췄다. 청정도와 미세먼지 상태도 각각 나무 아이콘과 9~999 사이의 수치로 표기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압축기와 모터 효율을 높여 냉방속도를 전년대비 최대 20% 개선했고 전 모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으로 절전 능력도 끌어올렸다. 81.8㎡·58.5㎡·52.8㎡ 등 14개 모델로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오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5년형 스마트에어컨 Q9000' 런칭 기념 행사를 열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패키지 판매,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고가는 에어컨의 경우 289만9000원~579만9000원이다.

LG전자는 겨울과 여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2015년형 '휘센 냉난방에어컨' 신제품 6종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스탠드형 '손연재G 스타' 냉난방에어컨 신제품(모델명 FW168DACW)에 향상된 공기청정 기능을 적용했다. '3M 초미세먼지 필터'를 적용해 초미세먼지보다 125배 작은 0.02㎛(마이크로미터)의 먼지까지 제거한다. 벽걸이형에는 '3M초미세먼지 필터'에 특수 코팅을 더해 알레르기 물질까지 제거한다. 또 '3중 탈취 필터'를 추가해 음식 냄새, 담배 연기, 생활 악취 등을 제거한다.

/양성운기자

이통3사, 'LTE-A 세계 최초' 법적 공방

'3밴드 LTE-A' 놓고 SKT "내가 먼저"… KT·LGU+ "상용화 단계 아냐"

이동통신 3사가 기존의 롱텀에볼루션(LTE)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체험단 운영을 근거로 세계 최초 상용화를 내세우는 반면 KT·LG유플러스 등은 "SK텔레콤의 해당 서비스 '상용화' 주장은 허위"라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고 있어 사태는 확장 일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가 지난 7일 발간한 'LTE로의 진화 리포트'에 자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고 명시했음을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9일부터 새로운 광고인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까지 내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나머지 회사들은 이 광고를 놓고 "상용화는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KT측은 "SK텔레콤의 이번 방송광고와 편법마케팅은 비정상적인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고 한다면 고객 판매용 단말에 대한 제조사 검수가 완료되고, 소비자들이 일반 유통매장에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고작 100여명의 체험단을 대상으로 삼성전자로부터 체험 단말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해당 서비스 상용화 광고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에서도 현재 제공되는 100대의 고객 체험단말기를 대상으로 공식 출시 후에는 전량 회수를 요청한 상황이다.

LG유플러스 측 역시 "SK텔레콤이 보도자료나 TV광고 등을 통해 펼치고 있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SK텔레콤의 논리대로라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3밴드 LTE-A 상용망에서 시험용 단말을 통한 속도 측정 등 상용화 테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당시 서비스를 세계 최초 상용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KT에 맞서 체험행사로 응수하고 있다. 11일과 12일 서울 종로점에서 LG전자 'G플렉스2'로 4배 빠른 LTE를 써 보도록 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 관계자는 "비록 체험단이지만 현재 실제 서비스 이용자가 있고, 삼성전자 측에서도 해당 단말인 '갤럭시 노트4 S-LTE' 공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GSA라는 공식 채널을 통해 3밴드 LTE-A 서비스 상용화를 인정받아 광고 심의를 받은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이통3사는 '세계 최초', '세계 최고' 타이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잇따랐다. 해당 타이틀을 마케팅에 활용할 경우 가입자 유치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꼼꼼 IT 리뷰 – 블루투스 헤드셋 '모비프렌 GBH-S700'

선 없어도 고해상도 사운드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이나 운동 시 음악을 듣기 위해 무선 이어폰·헤드셋을 구매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무선 제품은 유선에 비해 음향과 음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또렷한 사운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외면받기도 했다. GT텔레콤은 이런 소비자들의 수요를 받아들여 유선 제품에 못지 않은 무선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모비프렌 GBH-S700'을 내놨다.

GT텔레콤이 내놓은 모비프렌 GBH-S700은 타사 제품과 비슷한 넥밴드 스타일이다. 목 뒤에 걸 수 있어 이동하거나 운동할 때 편리하며 탄력 있고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 목에 걸었을 때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고해상도 음질이다. 무선 제품은 유선에 비해 음질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 제품은 웬만한 유선 제품에 준하는 사운드를 제공한다.

보컬 사운드는 고가의 유선 제품에 못지 않으며 저·중·고음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또렷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아주 약간의 치찰음이 발생하지만 사운드를 풍부하게 만든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큰 신경은 쓰이지 않는다.

다섯 가지의 이퀄라이저(EQ) 모드를 제공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 EQ만으로 다양한 음역대의 사운드를 고르게 즐길 수 있다.

이 외에 ▲AKG의 K3003과 같은 또렷한 고음을 제공하는 K모드 ▲젠하이저의 IE800과 같이 부드러운 중저음과 날카로운 치찰음의 고음을 제공하는 I 모드 ▲소니의 MDR-EX1000과 같이 풍부하고 입체적인 저음의 X 모드 ▲슈어의 SE535와 같이 날카로운 사운드의 S모드 등 하이엔드급 사운드를 제공하는 수십만원대 프리미엄 유선 제품과 같은 음질을 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다양한 부가 기능도 활용 가능하다. 기본 카메라 앱에서 사용 가능한 촬영 기능, 다기능 버튼을 세 번 누르면 울리는 사이렌 모드, 다기능 버튼과 플레이 버튼을 함께 누르면 벨소리가 나게 하는 스마트폰 찾기 기능 등이다.

다만 자주 발생하는 끊김 현상은 아쉽다. 사람이 많지 않은 사무실에서 4분 29초짜리 'Cold Play'의 'Yellow'를 듣는 동안 평균 한차례 정도의 끊김이 발생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아시아나 美 여행전문지서 수상 9일 미국 LA 로우스 헐리우드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 트래블러 시상식에서 현일조 아시아나항공 캐빈서비스1팀장(가운데)이 비즈니스 트래블러 임원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세계 최고 기내서비스 상'과 '세계 최고 지상서비스·콜 센터 상'을 수상했다. /아시아나 항공 제공

정보통신 '맑음' 자동차·철강 '흐림'

상의 기상도 조사… 사물인터넷 기회 열릴 듯

2015년에도 대부분 업종에서 힘든 한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기상도를 보면 정보통신은 계속 '맑음'인데 자동차는 '흐림'으로 다소 찌푸릴 전망이다. 철강·건설업도 날씨가 좋지 못하겠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0개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2015년 산업기상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섬유·의류·기계 부문은 '구름조금', 조선·정유는 '흐림'으로 예상됐다.

산업기상도란 업종별로 국내외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분석해 경기상황을 날씨로 표현한 것이다. '맑음'은 좋음, '구름조금'은 다소 좋음, '흐림'은 다소 나쁨, '비'는 나쁨으로 볼 수 있다.

석유화학·정유 업종은 앞으로 유가 하락 폭과 지속 기간에 따라 전망 수준이 크게 달라지거나 경기가 훨씬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정보통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창하겠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이 좋아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신형 스마트폰의 메모리 용량이 커져 D램 수요가 크게 늘고,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용 낸드플래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아이템으로 잡은 사물인터넷(IoT)도 성장 기회가 열린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올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 대수를 전년보다 30% 늘어난 49억대로 파악됐다.

가전 시장은 월드컵 등 빅이벤트가 열린 작년과 비교해 기저효과로 상반기엔 수출이 줄겠지만, 하반기엔 UHD·OLED TV 본격 보급과 퀀텀닷 TV 출시 등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성장 둔화는 여전히 부담이 될 전망.

철강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흐림'으로 전망됐다.

철강재 시황은 소폭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돼 평균가격은 떨어진다.

중국의 철강재 수요 증가도 1% 이내에 그쳐 수출전선도 흐릴 것 같다.

'흐림'으로 예보된 조선업도 유럽 경기 부진과 저유가의 부정적 영향에 따라 범용상선과 해양플랜트 발주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됐다.

/박성훈기자 zen@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대한민국 대학생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에 참여하세요!



기부 활용 분야 기부장학사업,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건립 지원 등

기부절차

① 약정하기
- 온라인 기부, ARS소액기부, 전화약정, 우편/팩스/이메일약정

② 납부하기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방문납부 등
- 현물, 유가증권, 부동산 등 기타 자산 기부시 방문 및 전화 상담

③ 확인증 발급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확인증 출력 및 영수증 발급

납부방법

① **온라인 기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② **전화약정** (개인기부) 02-2259-2028, 2021 (법인기부) 02-2259-2621, 2622
③ **팩스/이메일/우편** 약정서(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한 후, 제출
- 팩스 : 02-2259-2159 • 이메일 : gift@kosaf.go.kr
- 우편주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6층 한국장학재단 나눔봉사부 기부금 담당자

④ **무통장 입금**
- 신한은행 : 100-025-420820 • 기업은행 : 037-076308-01-146 • 우리은행 : 1005-601-531623
- 외환은행 : 630-006841-710 • 하나은행 : 175-910011-87604 (예금주 : 한국장학재단)

⑤ ARS 소액기부 060-700-1003 (한 통에 2천원)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법정기부금단체입니다. (2011년 7월 지정)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도경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달리는 즐거움'은 동급 최고

엔진 성능 업그레이드… 연비도 뛰어나

임의택의 차차차

■ 폭스바겐 시로코 R라인





▲한 줄 평가: 멋진 스타일과 강력한 성능을 갖췄다. 연비도 뛰어난 편. ▲평점: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해치백은 트렁크가 차체 안쪽에 내장된 형태를 뜻하는데, 특히 유럽에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해치백이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세단에 대한 선호도가 각별했던 탓이다.

그러던 시장 분위기에 일대 반전을 가져온 메이커가 폭스바겐이다. 폭스바겐은 베스트셀러인 '골프'를 앞세워 국내 고객들의 인식을 바꿔갔고, 여기에 자신감을 얻어 2012년 고성능 모델인 '시로코'를 선보였다.

이번에 소개하는 모델은 이 차의 마이너 체인지(부분 변경) 모델이다. 풀 체인지가 아닌 만큼 큰 변화는 없지만 앞뒤 모습은 더욱 강인한 인상으로 탈바꿈했다. 앞모습은 새 디자인의 주간주행등을 더한 바이 제논 헤드램프로 단장했고, 뒷모습은 LED 테일램프로 장식했다.

실내 변화의 하이라이트는 센터페시아 위에 달린 스포츠 인스트루먼트 다이얼이다. 오일 온도계와 터보 부스트 게이지, 크로노미터로 구성된 다이얼은 특히 가속을 할 때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한다.

성능도 업그레이드 됐다. 기존 2.0 TDI 디젤 엔진은 최고출력을 170마력에서 184마력으로 올렸고, 최대토크는 35.7kg·m에서 38.7kg·m로 높아졌다. 새 엔진과 짝을 이루는 6단 DSG 변속기의 궁합은 훌륭하다. 초창기 DSG 변속기 울컥거림은 찾아볼 수 없고 자동변속기만큼 매끄러운 변속감각을 전한다.

정지에서 시속 100㎞ 가속시간은 기존 7.9초에서 0.4초 단축된 7.5초다. 웬만한 동급 가솔린차보다 빠른 수준이고, 동급 디젤차 중에서도 매우 훌륭한 편이다.

같은 엔진을 얹은 골프 GTD와 비교하면 고속 주행성능에서 차이를 보인다. 골프 GTD보다 45㎜ 낮은 차체와 탄탄한 서스펜션으로 고속 핸들링에서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처음 국내에 선보인 시로코 R라인의 경우 19인치 휠을 달았는데, 신형은 18인치로 한 단계 낮아졌다는 점이다. 물론 18인치 휠도 승차감이나 주행성능에서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19인치 휠의 시각적인 멋이 사라진 점은 아쉽다.

시로코 R라인의 연비는 도심 13.3㎞/ℓ, 고속도로 17.1㎞/ℓ, 복합 14.8㎞/ℓ다. 구형보다 수치상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실제 연비는 여전히 뛰어나다. 평균시속 100㎞로 고속도로를 달리면 리터당 20㎞ 이상을 넘기는 게 어렵지 않을 정도다.

시로코는 달리는 즐거움을 극대화한 해치백이다. 골프와 비교하면 뒷좌석이 조금 불편하고 트렁크가 약간 좁지만, 대신 고속주행의 안정감에서 한 수 위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다.

/ferrari5@metroseoul.co.kr

쏘나타, 美서 '동급서 가장 경제적인 차'

현대차 신형 쏘나타(LF·사진)가 미국 시장에서 동급 최고의 경제성을 인정받았다.

신형 쏘나타는 미국 자동차 전문 평가기관 오토모티브 사이언스 그룹(ASG)이 선정하는 '2015 최고의 경제적인 차(2015 Best Economic Performance Award)'에서 풀 사이즈(Full-Size) 차급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오토모티브 사이언스 그룹은 미국 내 판매 차종을 11개 차급별로 나눠 차량 가격, 유류비, 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차량의 총 유지비용이 가장 작은 차를 선정, 매년 '최고의 경제적인 차'를 발표하고 있다.



신형 쏘나타는 64개 모델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풀 사이즈 차급에서 우수한 경제성을 인정받아 쉐보레 임팔라, 포드 토러스 등 주요 경쟁 모델을 모두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동급 최고의 경제적인 차로 인정 받으면서 올해 판매가 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의택기자

<국산차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2014년식
현대	그랜저 HG	–	2,020	2,210	2,590	2,670
	YF 쏘나타	1,280	1,290	1,440	1,690	1,850
기아	K3	–	830	1,340	1,440	1,500
쉐보레	스파크	510	950	710	890	880
	말리부	–	1,470	1,830	1,960	2,200
	크루즈	810	1,230	1,350	1,540	1,610
BMW	3시리즈	2,290	2,600	3,260	3,570	3,930
	5시리즈	3,270	3,610	4,240	4,610	4,960
벤츠	C클래스	2,760	2,880	3,280	3,860	3,910
아우디	A6	2,390	3,690	3,920	4,520	4,820
폭스바겐	티구안	2,430	2,620	2,940	3,340	3,510

정보제공 :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현대차 '디스플레이 오디오', '편집장의 상' 수상

현대차가 '2015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이하 2015 CES)'에서 IT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자동차의 '디스플레이 오디오' 시스템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5 CES에서 유력 언론사들이 뽑는 '편집장의 선택상(Editors' Choice Award)'을 수상했다.

'편집장의 선택상'은 CES의 공식 언론사이자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의 자회사인 리뷰드 닷컴(Reviewed.com)이 미국 주요 언론사의 편집장들과 함께 이번 박람회에 전시된 IT 기술들 중 기술력, 디자인,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상이다.

현대차가 이번 박람회에서 전시한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7인치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다. 블루링크를 탑재했으며, 스마트폰의 카플레이(애플)나 안드로이드 오토(구글)를 연결하면 내비게이션, 음악듣기, 전화연결, 메시지 보내기 등 각종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특히 차량용 오디오 기반의 기술임에도 각종 스마트 기기와의 연결성을 활용할 수 있어 추후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운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올해 안에 북미시장부터 양산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편집장의 선택상'을 수상한 기술은 총 48개로, 이중 자동차 업체가 받은 것은 현대차를 비롯해 3개(포드 싱크 3, 폭스바겐 MIB II)에 불과해 그 의미를 더했다.

현대차 미국법인 마이크 오브리언(Mike O'Brien) 부사장은 "디스플레이 오디오 시스템이 CES의 수많은 첨단 기술들을 제치고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의 혁신적인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의 '스마트 워치 블루링크' 시스템은 영국 유명 IT 전문 매체인 '테크 레이더(Tech Radar)'가 선정한 '최고의 기술상(The very best of CES)'의 자동차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테크 레이더 최고 기술상'은 총 18개 분야의 수상작이 발표됐는데 이 중 자동차 분야 수상작은 현대차의 '스마트 워치 블루링크' 시스템이 유일하다. /임의택기자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뉴스룸에서
이 정 우
<온라인뉴스부 차장>

4년 전 전국을 강타했던 구제역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충북 진천의 한 돼지사육농장에서 발생한 뒤 불과 한달여 만에 충남·경북·경기 등 전국 4개 도 13개 시·군으로 구제역이 확산됐다. 특히 지난 6일에는 경기도 안성의 한 한우농장에서 소까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7일까지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돼지가 2만8000여 마리이며 보상금·방역비용 등을 포함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이듬해 4월까지 전국으로 확산, 가축 348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2조7000억원이 넘는 큰 피해를 겪고도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방역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발병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항체형성률이 떨어지는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구제역 초기 대응도 허술했다. 지난해 12월 3일 구제역 신고가 처음 접수됐지만 당시 정부는 대부분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해 확산은 없을 거라고 언급했다. 발병농가 반경 10km 안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했지만 결국 한달 새 전국 13개 시·군으로 구제역이 번졌다.

농가에서는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백신을 접종하면 스트레스로 가축이 잘 자라지 않고 육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백신업체에 따라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최저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접종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구제역이 확산되고 다음 달 설 구정까지 겹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제역의 혈청형은 종전에 발생한 'O형'이지만 유전자형이 다르고 전파력도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더 불안하다. 방역망이 뚫리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4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당국은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백신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사외이사제' 이대로는 의미 없다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기업의 사외이사제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국제통화기금) 권고로 1998년부터 도입된 사외이사제가 아직까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땅콩 회항'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항공 사외이사들의 역할에 화살이 던져지고 있다. 함량미달의 세습경영을 사외이사들이 조금이라도 견제해줬으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일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수면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어도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경우, 앞으로 사외이사들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감정가의 3배가 넘는 한전 부지를 매입하는데 아무런 견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 소액주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외이사제는 기업의 경영감시를 통해 대주주의 독단을 견제해 공정한 경쟁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주주의 '왕조경영'을 돕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시행된 지 17년이 되어도 99% 찬성에 부결은 1%도 안 된다.

이러한 가운데 처우는 한 달에 2~3번 회의에 참석하고 연봉 1억원에 가까운 곳도 있고 대체로 5000만원 안팎이다. 따라서 사외이사를 '신이 내린 부업'으로 부르고 있다.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퇴직공무원과 기업인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선에 기여한 공로자들이 대거 포진하기도 하고 법정공방의 '방패역 로비스트'나 '보험용 퇴직관료'가 가세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직무에 사명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사외이사제가 허울만 갖췄을 뿐 본래의 취지를 조금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사외이사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이 법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때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구성을 독일의 감독이사회와 같은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채권단, 기관투자가, 소액주주, 노조 또는 노조에서 추천하는 인사 등으로 3분의 1을 채우는 방식이다.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임기를 단임제로 해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입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사외이사제는 오히려 기업의 부실경영을 촉진시킬 뿐이다.

포토프리즘 '외국인도 즐거운 스케이트'



9일 오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비정상회담', 다시 청춘에게 고하라



기자수첩
김 학 철
<문화스포츠부 기자>

종합편성채널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이 러시아·네팔·호주에서 온 새 멤버 세 명을 영입해 G12 체제를 구축한다. 지난해 각 국을 대표하는 청년 11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호주 대표 다니엘에 이어 터키 대표 에네스 카야의 자진 하차로 G9 체제를 유지했다. 잦은 논란과 출연진의 하차는 재정비가 불가피해보였다.

지난해 7월 처음 선보인 '비정상회담'은 그동안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시각을 지닌 외국인 청년들과 전현무·유세윤·성시경의 조합으로 매 회 화제를 뿌리며 순항했다. 유일한 '외국인 예능'으로도 입지를 다졌다.

인기에 취해 있었을까. 제작진은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삽입하는 초유의 실수를 범한다. 그것도 두번이나. 거듭 사과하고 당시 책임을 맡았던 프로듀서 겸 연출이 보직해임 경질됐다. 잠잠한가 싶더니 12월, 이번에는 출연진의 사생활이 논란을 빚었다.

그럼에도 '비정상회담'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이다. 12월 마지막 방송 시청률이 2.39%로 다소 저조했지만 새해 첫 방송인 지난 5일, 전국기준 4.2%로 반등했다. 지난해 올레tv VOD서비스 예능부문에서 '비정상회담'은 '무한도전'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JTBC는 '비정상회담' 출연진을 그대로 데려와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쯤되면 '간판'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다.

새해다. '비정상회담'은 지난 사건·사고를 '액땜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짠 새 판이 중요하다. 실수 없이 제대로 청년들에게 고할 수 있는 '비정상회담'을 시청자는 원하고 있다.

Youth luxury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배우 강소라가 'Youth(젊음)'의 새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영화 '써니'와 '파파로티'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았을 때만 해도 차세대 여배우로 주목해야 할 신인이었다. 최근 드라마 '미생'에서 신인이란 꼬리표를 완전히 뗐다. 그리고 구랍 한 시상식에서 보여준 패션으로 배우를 넘어선 시대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원피스는 소비자가 3만9000원이었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매장에 전시된 옷이었다. 세간에서는 그녀를 업그레이드 '개념 연예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었을 뿐인데 말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연출한 것이 아닌 일상적 생각과 행동으로 발현되는 정체성이란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시대의 젊은 소비자는 기성세대가 가졌던 윤리·도덕·사상과는 학습적 개념이 아닌 태생적 개념을 가졌다. 물론 이 사회, 젊은 소비자의 부모가 만들어 놓은 구조와 시장에서 탄생됐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구매·사용·공유의 방식은 이제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수준이다.

기성세대에게 '젊음'은 '나이가 어림'의 의미였다. 지금의 '젊음'은 '감각이 남다름'이다. 20대 소비자는 소위 '어플렌자키즈(Affluenza Kids)'다. 브랜드에 대한 소비를 태아 때부터 경험했다. 덕분에 브랜드에 대한 강박이 없다. 자연스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소비를 한다. 또 첫 장난감이 핸드폰이다. 믿을 수 없이 많은 정보를 시각화된 콘텐츠 형태로 받아들였다. 당연히 심미적 예술성이 길러질 수밖에 없었다. 합리적 실용성과 심미적 예술성의 결합은 산업자본주의로 일관돼 온 시장에 새로운 개념이 됐다.

강소라가 개념 연예인의 새로운 아이콘이 된 것은 반갑다. 그녀가 보여주는 패션은 2015년을 이끌어갈 소비시장 트렌드 'Youth Luxury'의 징표가 될 것이고, 그녀의 발언은 'Youth Luxury'의 이정표로 새겨질 것이다.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지구자원과 공존의 개념을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보여준 이효리와 차인표·신애라 부부, 그리고 하지원과 박진희 등은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이 스스로의 각성과 의지로 보여준 'Youth Luxury'가 꽃을 피워 화려한 정원이 만들어질 분위기다.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이 말했다. '나는 오늘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창가 아래에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한 권의 책을 펼치는 럭셔리한 아침을 맞았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금연 돕는 식·음료 '디톡스' 뜬다

금연 대체 상품보다 근본적인 니코틴 배출·해독이 더 중요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담뱃값이 오르자 흡연자들을 타깃으로 한 개비씩 파는 담배 판매소와 말아 피는 담배가 다시 등장했다.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긴 줄을 설 정도이며 보건소에도 금연을 생각하는 이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오픈마켓 옥션이 지난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연 보조용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800%나 증가할 정도로 금연에 대한 사람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디톡스(Detox)'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디톡스(Detox)란 '유독한(Toxic) 것을 제거(De)한다'는 뜻으로, 인체 내 독소를 빼내는 일종의 제독 요법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금연 대체상품보다 근본적으로 몸에 축적돼 있는 니코틴을 배출하는 디톡스가 금연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디톡스 음료로는 과일이나 채소로 만든 착즙 주스나 차(茶)가 있다. 식품으로는 레몬·토마토·양배추·우엉·자몽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인터넷 포털 등에는 디톡스 주스를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들이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해 먹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이에 식·음료업계에서는 몸 속에 니코틴 배출에 도움을 주는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돌(Dole)코리아의 '후룻볼 복숭아'는 100% 과일주스에 엄선된 과일을 담아 과일과 주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2in1 제품이다. 복숭아에는 구연산과 주석산 등의 유기산이 많이 함유돼 있어 흡연자들의 니코틴을 제거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비타민 A가 부족해 지는데 이때 당근이 권장된다. 당근에는 비타민A가 풍부하고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터핀이 함유돼 금연자에게 매우 좋다. 코카콜라사 미닛메이드의 '미닛메이드 5얼라이브'는 뿌리채소 당근과 4가지 과일을 맛있게 블렌딩 해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다.

뿌리채소 그대로의 건강함을 살린 한국야쿠르트의 '하루야채 뿌리채소'도 니코틴 배출에 도움을 주는 연근을 비롯한 더덕·칡·우엉·레드비트 등 15가지 몸에 좋은 뿌리채소를 한 병에 담았다. 사포닌·베타카로틴·비타민 등 땅의 영양을 그대로 간직한 뿌리채소는 꾸준히 섭취하면 독소 배출, 면역력 증진 등의 효능과 동절기 활력 충전과 체온 유지에도 효과적이다.

명일엽은 흡연으로 체내에 쌓인 독성물질을 중화시키고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풀무원녹즙 '아스파라거스 발효녹즙'은 유기농 명일엽과 케일을 신선한 상태에서 열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착즙해 효소의 파괴 없이 섭취 가능하다.

또 흡연을 하면 뇌 속에 오메가3와 같은 지방산의 수치가 떨어져 기쁨과 만족 같은 감정과 관련된 우리 신경세포 사이의 소통이 가로막히고 이는 곧 니코틴 욕구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된 견과류 제품들은 담배의 욕구를 줄여줄 수 있다.

효과적인 금연 성공을 위해서는 해당 성분의 섭취 이 외에 가벼운 운동보다 폐포에 독성물질을 떨어트리기 위해 숨이 찰 정도로 운동 강도를 설정해 꾸준히 하는 것이 좋으며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사실만을 말하겠다"

위메프, 티몬 인수 거짓말 들통

연초부터 전자상거래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티몬 인수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주만에 수습사원 11명을 단 한 명의 정규직 전환 없이 전원 해고한 '갑질논란'에 이어 티몬 지분 인수 관련 진실공방에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며 비난여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티몬의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티몬 인수전에는 약 10여 개 회사가 참여했고, 이 중 1차로 5개 회사를 추린 결과 LG유플러스가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이 됐던 위메프는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메프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식자료를 통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고 인수 의향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티몬의 대주주인 그루폰은 1월 1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초청하지 않은 업체들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왔다'고 간접적으로 위메프를 지적했다.

당시 일각에선 위메프가 삼성증권 비공식 e메일을 통해 희망서를 그루폰 측에 전달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위메프 측은 또다시 2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박은상 대표가 직접 나서 티몬을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지난달 17일쯤 이메일로 그루폰 측(도이치증권)에 전달했고 '현재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이 발생한지 1주일이 채 되지 않아 위메프의 입찰 참여 주장은 거짓으로 결론 지어졌다. 그루폰이 공식 입장까지 발표하면서 설명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진실'이라고 주장해온 위메프의 대응은 분명히 문제가 많다.

위메프는 이번 일로 경쟁사인 티몬을 인수할 정도로 성장한 안정적인 회사라는 면을 대외적으로 각인시켰다. 하지만 이런 이득을 위해 금방 밝혀질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꼼수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하는 업체가 되길 바란다. /정영일기자

'젬무브시원쿨골드' 출시

젬마코리아(대표 이우종)가 쾌변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젬무브시원쿨골드'를 출시했다.

제품은 식이섬유와 혼합 유산균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우종 젬마코리아 대표는 "제품은 배가 아프거나 설사 등의 불쾌감이 없으며 쾌변을 자연스럽게 돕는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마운틴듀, XTM과 함께 '콜라보 마케팅'

기획 에피소드, 필러 광고 등으로 주목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의 글로벌 탄산음료 브랜드 '마운틴듀'와 대표 남성 라이프 스타일 채널 XTM(케이블TV)이 이색적인 협업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마운틴듀의 타깃인 10~20대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XTM의 대표 프로그램 '가제트'를 통해 마운틴듀의 기획 에피소드 방송을 편성하고 공동캠페인 광고를 제작·방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롱넥보틀' 제품을 출시한 마운틴듀는 'Turn it on!'(네 안의 너를 켜라!)이라는 브랜드 콘셉트로 남성적이고 열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광고를 통해 마운틴듀의 탄생 배경부터 이들이 후원하는 마케팅까지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올 수 있었던 모든 과정을 낱낱이 공개했다.

또 필러 광고를 통해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역동적인 스노우보더의 모습을 보여주며 한층 더 새로워진 마운틴듀 롱넥보틀을 강조했다. 특히 '남자의 날을 세우는 겨울 아이템'으로 새로워진 마운틴듀를 알리며 젊은 남성 시청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극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정영일기자

"곰탕 먹고 한파·미세먼지 이기세요"

강강술래, 면역력증진 한우곰탕 55% 할인
길벗 출판 추천도서 증정 이벤트도 진행

겨울 한파에 미세먼지의 공습이 반복되면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고객들의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챙기기 위한 곰탕 파격할인 행사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대용량(800㎖·5봉·15인분)과 소용량(350㎖·5봉·10인분) 곰탕으로 구성된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를 55%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한다.

강강술래 곰탕은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며, 사골은 단백질과 콜라겐,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먹을 수 있어 조리도 매우 간편하다.



또 오는 15일까지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잘먹고잘사자세트(한우불고기500g+술래양념52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500g)'는 6만원(48%할인), '건강기원세트(강강양념520g+한우불고기500g)'는 4만5000원(35%할인)에 구매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31일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도서출판 길벗의 추천도서 증정 이벤트도 함께 벌인다.

'스키너의 마지막 강의'는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의 삶에 관한 마지막 강의를 엮은 책으로 노년을 '낯선 나라'라고 표현하며 많이 알고 준비할수록 새로운 생활이 즐거워진다는 내용이다.

'슈퍼잼 스토리'는 할머니에게 잼 제조법을 배워 열네 살 때 회사를 차려 세계적인 천연잼 제조업체 '슈퍼잼'의 최고경영자가 된 프레이저 도허티의 창업 도전기이다. /정영일기자

"피부 나이 그대로 멈춰라"

주름·탄력 개선… 새해 뷰티 키워드는 '안티에이징'

해가 바뀌면서 피부 나이도 한 살 늘었다. 갈수록 탄력이 떨어지는 피부를 위해서는 안티에이징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찬바람으로 주름은 깊어지고 푸석해지기 쉬운 1월, 피부를 꼼꼼히 관리하면 일년 후에도 연초와 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아래로 처지면서 팔자주름은 깊게 패인다.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도 깊어져 간다.

주름은 크게 노화주름과 표정주름으로 나뉘는데,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생기는 표정주름은 일반적인 노화주름보다 더 깊은 근육층에 자리잡아 '흔적'을 남긴다.

리리코스 '마린 링클 톡신 앰플'은 이런 표정주름에 특화된 고농축 앰플이다. 바다 달팽이 독의 모사체에 함유된 신개념 항노화 성분인 마린 링클 톡신이 노화 주름은 물론 잦은 표정 변화로 생긴 미세 주름까지 완화시킨다. 고농축 제형으로 사용 즉시 피부에 수분막을 형성해 촉촉함을 유지해준다.

이미 생긴 주름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땐 피부 자생력, 다시말해 피부 본연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좋다.

늘어지는 모공 역시 노화의 적신호. 20대에 피지로 기름졌던 모공이 어느 순간 도드라져 보이고 길쭉하게 늘어졌다면 모공주름을 관리할 때다. 헤라 '모디파이어'는 피부 상태를 탄력있게 끌어올려 탄력·주름·모공 세 가지를 동시에 개선하는 안티에이징 세럼이다.

헤라 관계자는 "피부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탄력 허리층이 약해지면 피부와 모공 역시 늘어져 다양한 피부노화 현상을 겪게 된다"며 "모디파이어에 함유된 '셀-바이오 레이어 벨트'가 피부 본연의 힘을 키워 늘어진 모공주름을 쫀쫀하게 가꿔준다"고 설명했다.



건조한 피부는 푸석함·주름 등 노화의 증상을 유발하는 주범이다. 평소 미스트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 촉촉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게 좋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리뉴얼미스트'는 녹차 스템셀·녹차 사포닌·EGCG 등 3가지 녹차의 정수로 구성된 녹차수 미스트다. 보습 에센스 제형으로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할 뿐 아니라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있다. 물이 대신 녹차의 생잎을 그대로 짜내 정제 농축한 녹차 세포수를 함유해 피부 재생을 돕고 거칠어진 피부결을 정돈해준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르윗 제공



/커밍스텝 제공

'청양의 해' 대세 컬러는 '블루'

칙칙한 톤 벗어난 티셔츠·코트 인기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아 블루 컬러의 패션 아이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파란색은 청량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줘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색상이다. 특히 어두운 톤의 의상을 주로 입는 겨울철에는 블루 계열의 의상 하나만으로도 멋스러운 코디를 연출할 수 있다.

티셔츠·니트 등 블루 계열 상의는 경쾌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낸다. 화이트·블랙 등 모노톤의 아이템에 잘 어울리는데, 최근에는 비비드한 색상부터 산뜻한 파스텔톤·짙은 네이비까지 파란색의 종류도 다양해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르윗의 블루 컬러 티셔츠는 도톰한 소재라 따뜻한 느낌을 주고, 데님 팬츠·스커트 등 어떤 하의에도 쉽게 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파스텔톤의 니트는 부드러운 실루엣으로 여성스러움을 물씬 풍긴다. 다크 네이비 컬러 티셔츠는 가슴과 소매 부분에 광택 소재를 더해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이다.

특별히 멋을 부리지 않아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하늘색 코트도 도전해볼 만 하다.

커밍스텝의 다크 네이비 코트는 블루와 블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뤘으며 스트라이프 패턴이 감각적이다. 넉넉한 핏으로 체형 커버에도 효과적이다. 심플한 이너웨어와 함께 입으면 오피스룩·데이트룩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커밍스텝 관계자는 "블루는 발랄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줘 어디서든 돋보이는 컬러"라며 "니트·티셔츠·코트 등 블루 계열의 의상은 자칫 밋밋할 수 있는 겨울 코디에 포인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솔루션 업체 통한 해외시장 공략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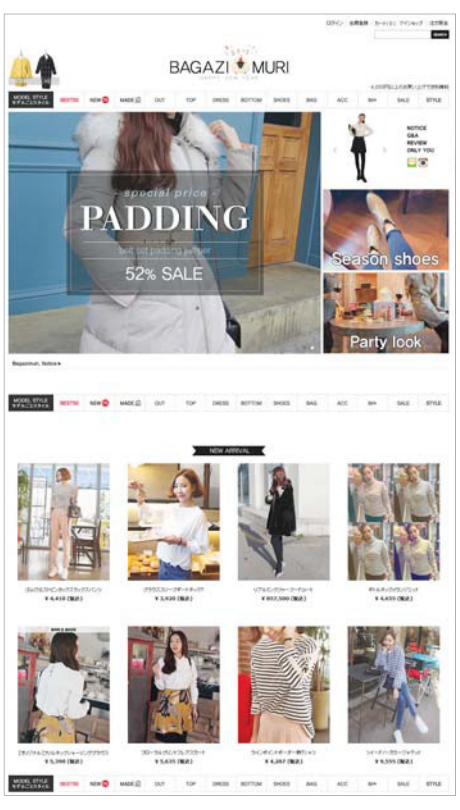
직판 사업자 1곳 당 2개 언어 쇼핑몰 구축

솔루션 업체를 통한 국내 쇼핑몰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다. 다양한 언어권별 각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해외 직접판매(직판)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외 시장에 뛰어들어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심플렉스인터넷은 '카페24 쇼핑몰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필리핀 등 자사에서 구축한 해외 지사를 통해 국가별 환경에 맞춘 마케팅과 고객 대응(CS), 배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회사를 통해 해외 직판에 뛰어든 사업자 수는 1만4403곳으로 사업자 1곳당 평균 2개 언어 버전의 해외 직판 쇼핑몰을 구축하고 있다.

언어권별로 영어 1만2675개(40.2%), 중국어 간체 9001개(28.6%), 일본어 8340개(26.4%)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 외에 중국어 번체, 스페인어 등이 4.8%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 직판에 나선 쇼핑몰 중 '스타일난다'의 경우 현재 중국·일본·대만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바가지머리'는 지난해 일본 직판 쇼핑몰에서 하루 평균 방문자 수 4000여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 역시 250% 상승했다.

스노우보드복 전문 쇼핑몰 '롬프'는 영어와 일본어로 구축한 해외 직판 쇼핑몰을 통해 사계절 내내 스노우보드복을 판매한다. 국내에서는 비수기인 여름에 러시아, 호주 등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재석 심플렉스인터넷 대표는 "해외 직판 온라인 쇼핑몰의 성공을 위해 국가별 소비자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운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할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가방업계 '봄 신상' 경쟁

핫핑크·메탈 실버 등 다양한 색상·디자인 출시

가방업계가 2015년 봄·여름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색상과 디자인의 '신상'을 선보이며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지드래곤의 광고컷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티아라펑키를 핫 핑크와 메탈릭실버 컬러로 새롭게 출시했다.



티아라 펑키(사진)는 부드러운 고트 레더 본연의 견고함과 가벼움이 특징이다. 전면의 플랫 메탈 티아라 장식과 스터드 장식이 펑키한 무드를 연출한다. 톡톡 튀는 핫핑크 컬러는 발랄한 매력으로 패션에 포인트 역할을 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체인과 가죽 두 가지 스트랩을 통해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연출하고, 탈부착이 가능해 클로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투미(TUMI)는 '보야져(Voyageur) 컬렉션'을 내놨다.

일상 생활과 출장, 짧은 여행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보야져 컬렉션은 내구성이 좋은 초경량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간결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투미 측은 설명했다.

새 상품은 봄 느낌이 나는 포실과 검정, 페리윙클, 파라다이스 핑크 색상 등으로 나뉘며 여행 캐리어·백팩·사첼·슬링 등 다양한 스타일로 출시된다. /박지원기자

상견례 장소 어디가 좋을까?

특급호텔, 다양한 이벤트·메뉴 준비

결혼을 앞두고 양가가 처음으로 만나는 상견례 장소를 고르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이에 특급호텔들이 편안하고 맛있는 상견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메뉴를 마련했다.

먼저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12개의 별실을 갖춘 중식당 천산에서 상견례 특선 코스 메뉴 '아녀쌍전(兒女雙全)'을 선보인다. 총 6가지 요리로 구성돼 있으며 6월 30일까지 상견례 메뉴 이용 고객에게는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제공

롯데호텔서울의 한식당 무궁화에서는 연중으로 상견례 메뉴를 만날 수 있다. A·B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세련된 인테리어를 바탕으로 품위 있는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는 고객의 취향에 따라 메뉴를 고를 수 있는 프리미어 다이닝 '가회'가 준비되며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인터내셔널 다이닝 레스토랑 카페 드 셰프에서 특선 한식 코스요리를 마련한다.

더팔래스호텔은 카페&뷔페 레스토랑 스톤플레이트와 일식당 다봉, 그리고 중식당 서궁 등 호텔 내 모든 레스토랑에서 상견례 메뉴를 제공하고 있고 세종호텔은 7가지의 정통 광동식 요리로 상견례를 앞둔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은 지난해 8월 리노베이션을 마친 레스토랑 파크카페 내에 파크 갤러리를 오픈하고 상견례 고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상견례를 위한 두 가지 코스요리도 준비했다.

밀레니엄 서울힐튼 역시 예비부부들의 성공적인 상견례를 위해 중식당 타이판에서 정통 광동식 중국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제한 즐길 수 있는 '주말·휴일 특선'을 선보인다. /황재용기자



빙판길 하이힐, 무릎에 치명적!

연골연화증 환자 크게 늘어… 근력운동 필요

겨울철 빙판길에서 하이힐은 위험한 존재다. 특히 몸이 굳은 상태에서 하이힐을 신고 빙판길을 걸으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연골연화증'이 생길 수 있다.

연골연화증이란 무릎 안쪽 뼈인 슬개골 아래에 있는 관절 연골이 탄력을 잃고 연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특히 하이힐을 자주 신는 20~30대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하이힐은 관절 연골에 부담을 준다. 하이힐을 신으면 체중이 발바닥에 고루 분산되지 못하고 발가락과 무릎 앞쪽 연골에 집중되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연골에 무리가 간다. 더욱이 빙판길이나 눈길을 걸어야 하는 겨울철에는 의식적으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걷다 보니 근육이 긴장해 관절에 가는 부담이 커진다. 또 자칫 부주의하면 무릎이 뒤틀릴 수도 있다.

이런 연골연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릎에 실리는 중력을 줄이기 위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한다. 게다가 평소 무릎관절을 보호하는 생활습관도 중요하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걸레질을 하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도 피해야 한다. 아울러 하이힐을 신는 중간중간 굽이 없는 운동화나 슬리퍼를 이용해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이와 함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무릎 통증을 느꼈다면 방치하지 말고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가벼운 연골연화증은 2~3개월 정도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제한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간단한 관절내시경 시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남창현 목동힘찬병원 부원장은 "앉았다 일어설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고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면 연골연화증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자전거 타기나 허벅지 근력운동 등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농협 안성팜랜드, 서울랜드와 MOU

농협안성팜랜드(사장 이일규)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소재 테마파크인 서울랜드와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간 회원권 공유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이다.

이일규 농협안성팜랜드 사장은 "이번 MOU로 고객에게 더 큰 즐거움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한층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팜랜드는 2012년 개장한 국내 최대의 체험목장이다. /황재용기자

즐기는 체험 '이상한 마법학교' 인기

시즌1에 이은 '두 번째 스토리' 흥행… 전문가 추천 이어져

본격적으로 겨울방학에 돌입하면서 '이상한 마법학교2(www.icanmagic.com)'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한 마법학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30~40대 부모에게까지 호기심과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마술이라는 콘텐츠에 EBS 자문위원의 검수를 거친 교육이 합쳐진 에듀테인먼트 체험전이다.

2013년 시즌1에서는 8만50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어린이 체험전 예매율 1위를 차지했다.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열리는 '두 번째 스토리' 또한 흥행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교육 전문가들의 추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육아·교육 부문의 대한민국 대표 주부 커뮤니티인 '맘톡(Mom-talk)'의 김지민 대표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방학을 현명하고 유익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한 마법학교는 EBS라는 대표 교육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만큼 전시의 질적인 측면에서 학부모들에게 추천할 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손진영기자 son@

또 '우리 아이 책카페' 운영자 허정은씨는 "지금은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체험 학습이 필요하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중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마술 체험전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상한 마법학교 예매는 인터파크와 옥션, 예스24 등에서 할 수 있다. 문의: 1577-3363

/황재용기자



E channel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같이 볼래?
용감한 NEWS
충격!
[밀착취재] 신동엽
알고보니, '헐'!
궁금하면!
특별기자회견
용감한 기자들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신동엽 | 홍석천 | 김태현 | 김정민 | 레이디제인
t.cast
이 프로그램은 아임티캐스트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imtcast.com



배우 곽동연 "영화 꼭 하고 싶어요"

드라마 '모던파머'서 로맨스남 한기준 역

합기도 선수 출신… 가수 연습생 2년 "슬럼프 와"
'감격시대' 출연 "공손해서 캐스팅 됐다"
"이하늬 천사, 한주현 순수"

배우 곽동연(18)은 지난해 12월 종영된 SBS '모던파머'를 통해 처음 성인 연기에 도전했다. 같은 해 'KBS 연기대상'에선 드라마 '감격시대' '드라마 스페셜-중학생A양'으로 청소년 연기상을 수상했다. 그는 FNC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배우다. 이 기획사엔 FT아일랜드, AOA, 씨엔블루 등 주로 가수가 많다.

◆ 가수 연습생에서 배우로 전향

곽동연은 FNC엔터테인먼트 가수 연습생으로 2년 동안 생활했다.

"합기도 선수 생활을 6년 정도했었어요. 당시 싸이월드에 제 사진을 게재했는데 소속사에서 오디션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회사에선 저를 주축으로 밴드를 만들어 데뷔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생활이 집, 학교, 숙소 이렇게 반복되니까 슬럼프가 왔어요. 그때 연기를 시작했죠."



그에게 연기를 가르쳐 준 선생님은 이용직 씨다. 곽동연은 "선생님 덕분에 신인인데도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생님을 거쳐 간 배우들이 많아요. '커피 맛있다'라는 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이는 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을 하는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인가'를 위주로 수업해요. 감독 중에는 선생님을 아는 사람이 많고 선생님 제자니까 믿어 주시기도 해요. 연기적, 인간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모던파머' 이하늬 손편지 "감동"

곽동연은 데뷔작 KBS2 '넝쿨째 굴러온 당신'(2012)부터 KBS2 '감격시대'(2014), '모던파머'에 출연한 걸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감격시대'는 김현중과 닮아서 캐스팅된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원래 저보다 더 닮은 배우가 있었대요. 태도가 안 좋아서 그 분보다 제가 더 공손하고 어느 정도 주인공과 닮았으니까 출연하게 됐죠. 운명처럼 다가온 역할이에요. '모던파머' 감독은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코믹한 느낌을 전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거든요."

'모던파머'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 한주현의 실제 나이는 곽동연보다 10살 많다. 곽동연은 "동생처럼 보이지 않게 노력했다"고 나이차를 극복하고 케미를 만든 비결을 공개했다. "연기를 하려면 서로 교감해야하는데 잘 진행될 수 있을 까 우려스럽긴 했어요. 근데 누나가 순수하더라고요. 금방 친해졌죠. 인터넷 댓글 보면 저희 커플이 예쁘다는 의견이 있어요. 반은 성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커플은 서로 의지하고 정을 나누는 찰나에 극단적인 상황과 마주하니까 코믹과 어우러져 시청자의 눈길을 끈 것 같습니다."

그는 '모던파머'에 함께 출연한 이하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냈다. "천사예요. 마지막 촬영 때 전 스태프에게 장갑과 손 편지를 다 줬어요. 편지도 사람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저한테는 '동연아 철없는 형들 사이에서 고생이 많았지. 눈빛이 참 좋으니까 좋은 배우 될 수 있을 거야'라고 했죠. (내용을) 다 기억할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데뷔 후 영화에 출연한 적이 없다. 그는 "상업 영화 중에도 '국제시장' '명량' 같은 메시지 있는 영화를 올해 꼭 해보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star bag

고성희 청순한 매력 발산



배우 **고성희**가 KBS2 금요드라마 '스파이'에서 여주인공 윤진 역을 맡아 순수하면서도 청순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지난 9일 첫 방송에서 그는 하얀 피부와 긴 머리로 청순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왕지혜 "악녀였지만 행복"



미스코리아 출신아나운서 교채연 역으로 열연을 펼친 배우 **왕지혜**가 '미녀의 탄생' 종영 소감을 전했다.

그는 "'미녀의 탄생'의 교채연으로 사는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스태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송승헌 中영화로 베이징 행



배우 **송승헌**이 **유역비**와 함께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영화 '제3의 사랑'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동명의 중국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남녀의 모진 사랑을 그렸다. 송승헌은 재벌 2세를 맡았다.

EXID 가요순위 프로 싹쓸이



걸그룹 **EXID**가 KBS2 '뮤직뱅크'에 이어 SBS '인기가요'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11일 오후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EXID는 '위아래'로 1위 후보에 올라 지디X태양, 규현을 꺾고 1위에 올랐다.





‘썸’만 타다 끝나는 오늘날의 연애

20~30대 청춘들의 로맨스… 기성품 같은 마무리 아쉬워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오늘의 연애

바야흐로 ‘썸’의 시대다.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연애의 트렌드도 깊은 관계보다는 얕으면서도 안전한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오늘의 연애’(감독 박진표)의 두 주인공 준수(이승기)와 현우(문채원)도 끝없이 이어지는 ‘썸’으로 연애에서만큼은 좀처럼 순탄하지 못하다.

준수의 문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한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밀당(밀고 당기기)’을 못한다. 여자에게만 늘 맞춰주기만 하다 보니 연애를 해도 100일을 넘기는 일이 드물다. 현우의 문제는 해서는 안 될 사랑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유부남인 방송국 PD를 사랑하는 것. 오직 사랑이라는 감정에만 몰두하는 현우의 연애는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

‘오늘의 연애’는 제목처럼 쉽지 않은 오늘날의 연애를 그린다. 영화의 지향점은 지금 20~30대 청춘들이 공감할 로맨스다. 서울의 ‘핫 플레이스’인 홍대와 이태원, 서촌 등을 배경으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거나 들어봤을 법한 에피소드들이 영화를 가득 채운다. “사랑은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지” “넌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을 사랑한 거야. 네 감정을 사랑한 거지” 등의 대사들도 영화에 현실적인 공감대를 더한다.

그러나 ‘오늘의 연애’는 지금 시대 연애의 단상들을 모아놓기만 할 뿐 이를 하나로 묶는 통찰력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왜 이들이 이렇게 ‘썸’만 타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두 주인공을 순수하고 착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결국 이야기만 놓고 보면 ‘어장관리녀’와 ‘호구남’의 로맨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기성품 로맨스 영화 같은 마무리도 아쉽다.

다만 배우들은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 문채원은 얄미운 캐릭터에 다양한 매력으로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승기의 첫 스크린 도전도 성공적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1월 15일 개봉.

임창정·최다니엘·임은경 한 자리에

‘치외법권’ 캐스팅… 11일 크랭크인

영화 ‘치외법권’(감독 신동엽)이 배우 임창정, 최다니엘, 임은경, 장광, 이경영 등의 캐스팅을 확정짓고 11일 크랭크인했다.

‘치외법권’은 통제불능의 프로파일러 정진(임창정)과 강력계 형사 유민(최다니엘) 콤비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신흥 종교집단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영화다.







임창정·최다니엘·임은경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창정은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FBI 출신 프로파일러 정진 역을 맡았다. 프로파일러지만 누가 봐도 강력계 형사 같은 인물로 지적인 매력은 물론 다혈질 성향에 코믹함까지 갖춘 캐릭터다.

최다니엘은 범인 검거보다 여자에 더 관심을 쏟는 강력계 형사 유민을 연기한다. 엘리트 코스로 형사가 됐고 매력적인 외모까지 갖춘 인물로 새로운 연기 변신에 도전한다.

장광은 신흥 종교 교주 성기 역으로 악역에 도전한다. 임은경은 사건 해결의 주요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로 10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이경영은 정진과 유민을 의기투합시키는 특수본 왕팀장 역으로 등장한다.

‘치외법권’은 11일 크랭크인해 올해 8월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카트’ ‘거인’ 해외서 잇따른 러브콜

로테르담·산타바바라 국제영화제 초청

영화 ‘카트’(감독 부지영·사진 왼쪽)와 ‘거인’(감독 김태용·오른쪽)을 향한 해외 영화제 초청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염정아, 문정희, 김영애 주연의 영화 ‘카트’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제44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여성 인권에 주목하는 프로그램인 ‘왓 더 F?!’ 섹션에 공식 초청됐다.



프로그래머 비앙카 톨은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자 하는 프로그램 의도상 ‘카트’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다. 매우 잘 만들어진 영화로 희망과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투쟁 한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결연한 의지를 갖고 맞서 싸우는 여성들을 보여준다. 영화가 관철해 나가는 신념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초청 이유를 밝혔다.

또한 ‘카트’는 오는 27일 개막하는 제30회 산타바바라 국제영화제 ‘팬 아시아’ 섹션에도 초청됐다. 산타바바라 국제영화제의 ‘팬 아시아’ 섹셔은 주로 역사적 비극, 도시 범죄, 세계의 참사이, 지역 경관을 다루는 아시아 영화들을 집중 소개한다.

최우식 주연의 영화 ‘거인’도 제44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의 ‘브라이트 퓨처’ 부문에 초청됐다. 거인 탐스마 프로그래머는 “김태용 감독은 자신의 과거사를 정면돌파하며 한국영화계의 주요한 재목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어려움과 동시에 성장해 나간다는 모순점을 짜임새 있고 흥미롭게 다루면서 정직하고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을 보여준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장병호기자

‘센과 치히로…’ 다시 만난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2001년에 발표한 장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사진)이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2월 재개봉한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수상한 터널을 지나 인간에게는 금지된 신들의 세계로 오게 된 소녀 치히로의 신비로운 모험을 그린 어드벤처 영화다.

애니메이션 최초로 제52회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대표작이다. 제75회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 제25회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작품상, 제68회 뉴욕비평가협회상도 함께 수상했다.

이번에 재개봉하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거쳐 보다 깨끗한 화질로 만날 수 있다.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2종의 포스터는 돼지로 변해버린 엄마와 아빠 옆에 다부진 모습으로 서 있는 치히로와 그리고 물속에 잠긴 듯한 치히로의 모습 등 영화 속 신비로운 장면들을 담았다. /장병호기자

‘국제시장’ 1000만 카운트다운

922만… 금주 중 1000만 영화 등극 확실시

영화 ‘국제시장’(감독 윤제균)이 1000만 영화 등극을 향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한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국제시장’은 개봉 25일째인 10일까지 누적 관객수 922만5854명을 기록했다. 10일 토요일 하루 동안 모은 관객 수는 46만4332명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금주 중 100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된다.

지난달 17일 개봉한 ‘국제시장’의 흥행 속도는 지난 2013년 1월 개봉한 ‘7번방의 선물’보다는 이틀이, 2014년 초 1000만 관객에 등극한 ‘변호인’보다는 하루가 빠르다.

‘국제시장’이 1000만 관객이 될 경우 윤제균 감독은 ‘해운대’에 이어 두 번째 1000만 영화를 기록하게 된다. 한국영화 사상 1000만 영화를 두 편이나 탄생시킨 감독은 아직까지 없다. /장병호기자



장근석, 차승원·유해진의 '노예' 되다

tvN '삼시세끼 – 어촌편' 출연… "허드렛일 도맡아" 웃음 줘

예능 첫 나들이에 나선 '아시아 프린스' 장근석이 차승원·유해진의 노예로 전락한다.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어촌편'에서다.

'삼시세끼-어촌편'은 강원도를 벗어나 뱃길로 가장 먼 섬, 만재도가 배경이다. 동갑내기 명품 배우 차승원·유해진의 캐스팅도 의외였지만 아시아 전역에 걸쳐 팬을 거느리고 있는 '꽃배우' 장근석이 망가짐을 불사하고 출연을 결정한 것이 단연 화제였다. '어촌편'에서 장근석은 차승원·유해진, 그리고 제작진의 노예가 돼 궂은 일을 도맡을 전망이다.

지난 9일 '삼시세끼'의 연출을 맡은 나영석·신효정 PD와 출연진 3명은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 자리에서 캐스팅 비화를 공개했다. 장근석을 선택한 이유에 나 PD는 "40대 중반 두 사람이 만나다보니 잡 일을 볼 친구가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작진이 피곤하다. '고품격 요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하자'고 꼬셨다. 장근석 본인도 요리를 잘 한다고 그러면서 합류했다. 지금 잡부로 아주 잘 해내고 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9일 '삼시세끼'의 연출을 맡은 나영석·신효정 PD와 차승원·유해진·장근석 등 3명은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CJ E&M 제공

이에 장근석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결국 자신은 나PD에게 속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쁜 요리 프로그램인 줄 알았다. 마지막까지 신념이 있었다. '얼마나 예쁜 그림이 있길래 만재도까지 가나'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망가질대로 망가졌다. 나의 팬은 이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요리는커녕 잡부로 일하고 있다. 처음에는 요리에 욕심을 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마늘이나 까고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말했다.

'만재도 요리사'로 거듭난 차승원은 '무한도전-탄광촌 석탄 캐기'로 이미 한 차례 극한을 경험한 바 있다. 차승원은 이에 "공교롭게 연달아 출연한 두 프로그램이 모두 극한이다. '삼시세끼'는 음식을 다루고 '한끼'를 만들어 본다는 매력에 끌렸다. 유해진도 오래 알던 사이고 근석이도 안면이 있는 사이라 재밌을 것 같았다. 나영석이라는 선장이 있었기에 선택했다"고 전했다.

유해진은 "나PD가 예전부터 '같이 해보자'고 했다. 함께하는 멤버가 좋았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나 PD는 이들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했다. 차승원을 몇 차례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는 나PD는 그가 음식에 조예가 깊다는 것을 알아챘다. 어촌에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차, 차승원에게 러브콜을 먼저 보냈고 흔쾌히 응한 것이다. 나PD는 "유해진은 '1박2일' 때부터 모시고 싶었다. 캠핑이나 야생활동을 굉장히 즐기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삼시세끼-어촌편' 촬영은 현재 3분의 2가 완료된 상태다. 나 PD는 "총 10부작으로 완성되지 않을까"라며 기대를 높였다. 차승원·유해진·장근석의 눈물 젖은 밥상은 오는 16일 tvN을 통해 공개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온라인 핫 이슈

바비킴, 기내 만취 난동 뒤늦게 사과



가수 바비킴(사진)이 기내 만취 난동을 벌인 데 대해 사과했다.

바비킴은 9일 소속사 오스카 이엔티를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이 상황을 인지하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전했다.

바비킴은 7일 오후 4시49분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한공 KE023 편에 탑승했다. 이륙 5시간 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자신을 저지하려던 여승무원의 허리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본인 마일리지 포인트를 이용해 처음부터 비즈니스 석을 예약을 했다"며 "그러나 대한항공 발권 문제로 이코노미 석으로 티켓이 바뀌었다. 티켓 문제를 항의했으나 항공사 직원들은 비즈니스 석이 비어 있음에도 좌석을 원래대로 교체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바비킴은 난동 사건으로 현재 MC를 맡고 있는 MBC 'TV예술무대'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최대한 빨리 귀국해 추후 경찰 조사가 있을 경우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최시원이 추는 미스에이 춤은?

중국 한류팬 위해 '우상본색' 출연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사진)이 10일 MBC '우상본색'에 출연했다. '우상본색'은 MBC가 중화권 한류 팬을 위해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시원은 이날 게임 캐릭터 슈퍼마리오 분장을 하고 등장해 팬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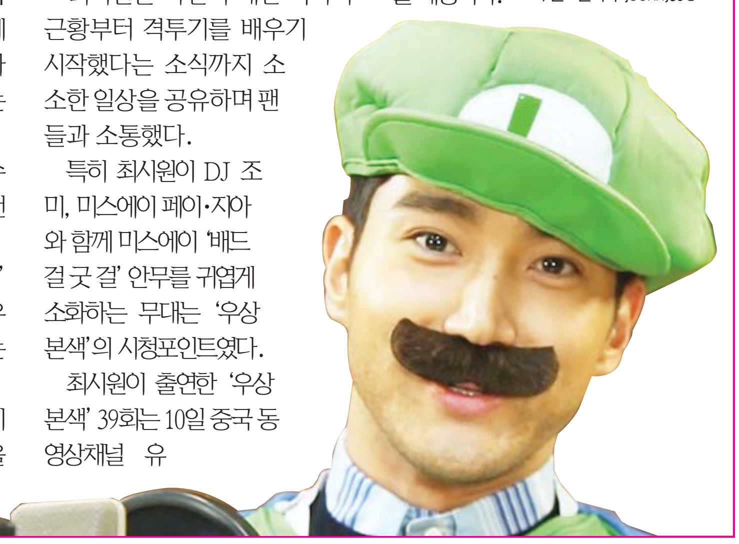
슈퍼마리오 분장은 '우상본색' 진행자인 DJ 조미와 최시원의 우정을 상징한다. 게임을 좋아하는 조미의 취향을 반영한 것이다.

두 사람은 마리오(조미)·루이지(시원) 형제로 변신해 웃음을 자아냈다.

최시원은 자신의 애견 벅시의 근황부터 격투기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특히 최시원이 DJ 조미, 미스에이 페이·지아와 함께 미스에이 '배드 걸 굿 걸' 안무를 귀엽게 소화하는 무대는 '우상본색'의 시청포인트였다.

최시원이 출연한 '우상본색' 39회는 10일 중국 동영상채널 유쿠, 국내에선 폭을 통해 공개됐다. TV로는 추후 MBC 뮤직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알맹' 이해용, 묻지마 폭행범 잡아



혼성듀오 알맹의 멤버 이해용(사진)이 묻지마 폭행범을 잡았다.

1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해용은 8일 오전 9시10분 관악구 신림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폐지를 줍던 81세 할머니를 때리던 회사원 A씨를 발견했다.

이해용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를 붙들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술김에 별다른 이유 없이 할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해용이 폭행범을 잡는데 도움을 준데 대해 범인 검거유공상을 포상하기로 했다.

이해용은 최린과 함께 SBS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시즌3에 출연해 톱6까지 진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첫 미니 앨범을 낸 알맹은 내달 새 앨범 발매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전효진기자

포미닛 남지현 특별한 생일파티

남산 걸으며 팬들과 교감

그룹 포미닛의 남지현(사진)이 팬과 함께 특별한 생일을 보냈다.

남지현은 10일 팬클럽 포니아와 함께 남산 산책 이벤트를 열었다. 이번 산책은 데뷔 이후 매년 생일을 잊지 않고 축하해 주는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 싶다는 남지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운동복과 운동화 차림으로 등장한 남지현은 산책에 앞서 팬들은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다. 이어 추첨을 통해 선정된 팬 카페 회원 20여명과 두 시간 동안 남산 산책 코스 5㎞를 완주했다.

종착점인 남산 N 타워에 도착해 단체 인증샷을 촬영하고, 직접 준비한 기념 선물과 산책 완주증을 나눠주며 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남지현은 "이번 이벤트 덕에 특별한 생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포미닛도 새 음반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전효진기자


'킬미, 힐미'


'하이드 지킬, 나'


'하트 투 하트'

정신 질환 품은 드라마

다중인격 '킬미힐미' '하이드…'·대인기피 '하트…'
"사회적 병리현상 다뤄… 시청자 공감대 형성 기대"

다중인격, 대인기피증 등 정신병을 다루는 드라마가 눈에 띈다.

과거 의학 드라마가 외과를 배경으로 한 것과 다르다. 이 같은 경향은 지난해 SBS '괜찮아 사랑이야'부터 보여졌다. 작품은 정신 질환을 현대인이 앓는 감기 정도로 소개한다. 상처를 감춘 채 살아 가는 현실의 단면을 역설해 호평 받았다.

정신 질환이 안방에 등장한 데는 상처 입은 현대인인 시청자의 공감지수를 높이고 단편적으로 묘사됐던 등장인물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MBC 수목극 '킬미, 힐미'는 다중인격장애를 앓는 재벌 3세와 정신과 의사의 로맨스, 이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다룬 작품이다. 배우 지성은 7개 인격을 가진 재벌 3세 차도현 역을 맡았다. 지성은 현재 다중 인격 가운데 혈투를 좋아하는 신세기, 구수한 사투리가 인상적인 바다 사나이 페리박을 연기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눈빛과 말투가 작품의 재미를 더한다.

오는 21일 첫 방송되는 SBS 새 수목극 '하이드 지킬, 나'는 한 남자의 전혀 다른 두 인격과 사랑에 빠진 여자의 삼각 로맨스를 다룬다. 현빈은 작품에서 1인 2역에 도전한다. 차가운 까칠남 지킬 구서진과 달콤한 순정남 하이드 로빈으로 상반된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tvN 금토드라마 '하트 투 하트'는 주목 받아야 사는 정신과 의사 고이석(천정명)과 주목 받으면 죽는 대인기피성 안면홍조를 지닌 여자 차홍도(최강희)의 로맨스 드라마다. 차홍도는 헬멧을 쓰지 않으면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심각하다. 취직하기 위해 헬멧을 벗고 할머니 오영래로 분장했다. 최강희는 차홍도의 삶을 슬프지만 코믹하게 그려 내공 있는 연기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정신병은 지금 환경적으로 시청자의 공감을 얻는 데 이점 있는 소재"라며 "연출적으로도 특정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준다.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새해에 만나는 베토벤의 화음

'디어 베토벤' 다음달 25일 예술의 전당서



베토벤이 선사하는 기쁨과 환희의 두근거림을 만날 수 있는 음악회가 열린다.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는 피아니스트 유영욱과 함께 음악회 '디어 베토벤'을 다음달 25일 오후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



피아니스트 유영욱(사진 왼쪽)은 '한국의 베토벤'이라는 별명과 함께 국내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10세 때부터 자신의 작품 발표회를 가질 정도로 작곡에도 놀라운 재능을 보인 그는 해외 유수의 콩쿠르에서 수상해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휘는 장윤성 지휘자가 맡았다. 현재 서경대학교 초빙 교수인 지휘자 장윤성은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프라임 필하모닉의 수석 객원지휘자, 서울시 청소년 교향악단과 울산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했다. 얼마 전에는 오스트라이 비엔나에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음악협회를 설립해 음악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음악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베토벤의 서곡과 교향곡 7번을 통해 리듬의 향연을 보여준다. 2부에서는 피아니스트 유영욱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의 전 악장을 연주해 고전미 안의 기교를 전할 예정이다.

연주는 사단법인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가 맡았다. 2003년 창단한 순수 민간 교향악단으로 그 동안 다양한 교향곡과 오페라 연주, 기획공연으로 연주력을 인정받아온 오케스트라다. 입장권 예매는 SAC 티켓(02-580-1300)에서 가능하다. (문의: 코리아나매니지먼트 02-3487-0678)

/장병호기자 solanin@

'개콘' 신년 새 코너 포진

'부엉이' '왕입니다요' 인기 이어가기 '시동'

KBS2 '개그콘서트'가 새해를 맞아 새 코너 '부엉이' '왕입니다요'를 준비했다.

'부엉이' '왕입니다요'는 이미 사전 녹화를 마쳤다. '개그콘서트'를 찾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아 방송 후 시청자 반응이 주목된다는 제작진의 의견이다.

두 코너는 개그맨들과 수개월 동안 회의를 하며 수정을 반복해 완성했다. 웃음 포인트를 집어낸 '개그콘서트' 제작진의 야심작이기도 하다.

'개그콘서트' 측이 공개한 사진에서 '부엉이' 주인공들은 진기한 분장을 하고 있다.

40대 뼈그맨 박성호는 부엉이를 연상하게 하는 분장으로 거꾸로 매달려 있다. 코너 '명인본색'으로 "스마미셍" "아가리또고자이마스"라는 유행어를 만든 이상구는 재미있는 표정을 연출해 웃음을 자아낸다.

'왕입니다요'는 사극을 콘셉트로 한다. 주인공 이문재, 코너 '핵존심'의 이상훈, 여장 전문 개그맨 정승환, 미녀 개그우먼 김승혜는 톡톡 튀는 캐릭터를 연기할 예정이다. 김상미 감독은 "버라이어티한 개그 장르와 색깔 있는 코너로 '개그콘서트' 인기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능 시청률 1위를 차지했던 '개그콘서트'가 신년 새로 준비한 2개 코너로 주말 예능의 강자다운 면모를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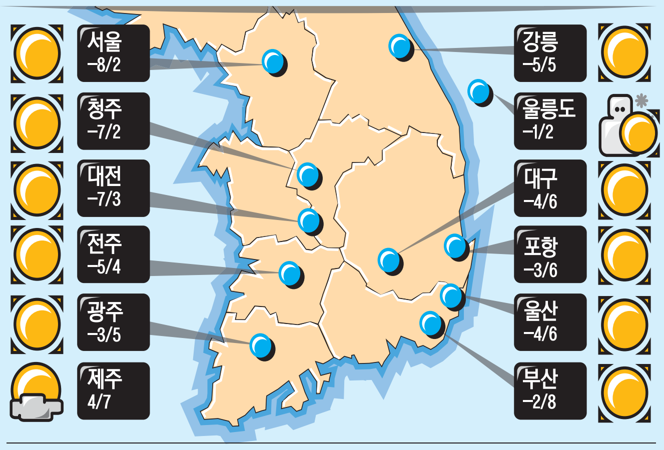

부엉이


왕입니다요

날씨

1/12 月 일출시각 07:47 일몰시각 17:3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겨울철에는 감기를 비롯한 상기도 감염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등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9		7	
1	3		7					
7		9				8		
8	7							2
			2	3	4			
2							9	1
		2				6		9
					2		5	8
	5		4		6			

		8						
1			2		7	8		9
6	7		3					
					9			6
7		6		2		1		5
4			6					
					8		2	3
2		5	4		3			8
						7		

스도쿠 정답

6	8	4	5	2	9	1	7	3
1	3	5	7	6	8	9	2	4
7	2	9	1	4	3	8	6	5
8	7	6	9	5	1	3	4	2
5	9	1	2	3	4	7	8	6
2	4	3	6	8	7	5	9	1
4	1	2	8	7	5	6	3	9
9	6	7	3	1	2	4	5	8
3	5	8	4	9	6	2	1	7

5	2	8	9	4	6	3	1	7
1	3	4	2	5	7	8	6	9
6	7	9	3	8	1	2	5	4
3	5	2	7	1	9	4	8	6
7	9	6	8	2	4	1	3	5
4	8	1	6	3	5	9	7	2
9	4	7	1	6	8	5	2	3
2	1	5	4	7	3	6	9	8
8	6	3	5	9	2	7	4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유럽사법재판소에 쏠린 눈



강세준의 마켓포인트

이번주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은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결정할 전망입니다. 백척간두에 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 14일(현지 시간) ECJ가 1차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 2012년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OMT)을 고안했습니다. 유로존 맹주 노릇을 하는 독일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유로존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조약에는 ECB가 회원국 정부에 직접 돈을 빌려줘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OMT는 이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것이 독일의 주장입니다.

OMT가 시행되면 결국 자기들 같은 부자 회원국 돈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회원국으로 무상 이전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국채 매입을 통해 ECB로부터 유로화를 공급받은 그리스 등이 그 돈을 되 갚을 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날 위헌 판정이 나면 ECB의 국채매입 계획은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이른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지속적인 물가하락)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유로존의 앞날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려면 결국 돈을 더 많이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값이 정상수준을 회복하면서 기업의 생산의욕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연 0.05%로 사실상 제로수준이어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드라기 총재도 미국이나 일본, 영국처럼 국채를 마구 사들이는 '양적완화'라는 비 전통적 수단을 마지막으로 해보려는 것인데, 이게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더이상 방법이 없게 되는 셈이지요.

만약 ECJ가 OMT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다면 드라기 총재뿐 아니라 금융시장도 일단 환호할 것입니다. 유로존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에도 반등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삶의 의미 못찾고 의지도 없어 걱정
나무와 관련된 일 하면 보람 찾을 듯

Q willylove21 남자 79년 09월 26일 양력 아침 7시 45분

본인 사주는 처음 해 보내요. 뭔가 삶에 의미도 찾지 못하고 의지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시력이 안 좋아 공부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성격도 내성적이구요. 일도 변변한 좋은 직장을 다녀 보지 못했고 계약직이나 단기적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연애도 2년 3년 하다가 제가 못나서 헤어져 버린 거 같아요. 삶에 자신감도 잃어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A 사주인명리학으로 병신일주(丙申日柱: 태어난 생일)로서 도와주는 오행이 부족해 지금처럼 시력이나 골절 쪽이 안 좋기도 합니다. 이러저러한 연유로 마음이 약해지고 외롭습니다. 사주를 놓고 그림을 그려보면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빛을 내지 못하고 있군요. 석양에 노을이 지는데 바위로 된 민둥산 위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상황에서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으니 스산하고 생기가 없으니 적적합니다. 내성적이기는 하나 성격이 따뜻하고 화려하기도 해 운이 올 때는 급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색적인 면이 있어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면이 있기에 직장에서 화합이나 이성과의 사랑도 어렵다고 봅니다. 직장 다니며 나머지 시간에 뭐든 기술을 배우십시오. 어렵겠으나 훨씬 나은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으니 희망이 있습니다. 개운(開運)을 하기 위해서는 동남방향으로 아파트보다는 마당에 나무와 화초가 자라고 있는 땅바닥이 있는 집에서 지내야 몸도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업종을 택할 때는 나무목(木)과 관계 된 일을 하면 잘되기도 합니다. 식물을 재배하고 농사짓는 일과도 인연이 있으므로 다른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만 보람되지 않는 일은 지금부터 서서히 줄이고 나무와 관련된 일을, 기술을 배우도록 해보세요. 와신상담하는 자세로 다져나가도록 하셔야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는 100가지가 되지만 포기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 약한 마음뿐입니다. 내년 봄과 여름에는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는 연분이 있습니다만 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낙담하지 말고 다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12일 (음 11월 12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 **48년생** 반가운 귀인 찾아온다. **60년생** 문서는 확인 꼭 직접 확인하라. **72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84년생** 운기 열렸으니 소원을 빌어 보자.

소 — **49년생** 집안일은 성숙하게 대처하라. **61년생** 자녀에 큰소리 칠 일 생긴다. **73년생** 모범적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라. **85년생** 새 결심에 연초 분위기 난다.

호랑이 — **50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62년생** 새해 새로운 설계에 오~해피. **74년생** 승부수 일찍 던지면 후회한다. **86년생** 경우의 수 따져보고 움직여라.

토끼 — **51년생** 나만의 색과 길을 찾아라. **63년생** 고민 끝에 최고의 방법을 찾는다. **75년생** 큰 꿈을 위해선 작은 꿈은 미뤄라. **87년생** 박수 받을 일을 해서 뿌듯하다.

용 — **52년생** 가족과 가까워 질 일이 생긴다. **64년생** 껄끄러운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 **76년생** 막히면 돌아가라. **88년생** 상사의 시시콜콜한 간섭에 숨 막힌다.

뱀 — **53년생** 고수의 충고 받아들여라. **65년생** 목적지로 가는 길 멀지 않다. **77년생**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습관을 버려라. **89년생** 싱글은 소개팅이 기다린다.

말 — **42년생** 등 돌렸던 벗과 회포 푼다. **54년생** 즐기기만 하는 삶은 심심~. **66년생** 동쪽으로 가면 행운이 따른다. **78년생** 일하는 방향 설정에 신경 써라.

양 — **43년생** 어머니 밥상 같은 어른이 되어보자. **55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67년생** 조직 일은 선도하라. **79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원숭이 — **44년생** 남을 도울 수 있어 즐겁다. **56년생** 남의 도움 사양하지 말라. **68년생** 변화보단 안정이 이롭다. **80년생** 선두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

닭 — **45년생** 깊은 정 주는 이웃에 행복~. **57년생** 눈독 들인 것은 손에 넣는다. **69년생** 전쟁 중엔 장수 안 바꾸는 법~. **81년생** 나누면 커지는 게 정이다.

개 — **46년생** 가슴이 따뜻한 벗이 좋다. **58년생** 집안일은 정면 돌파하라. **70년생** 모임에 가면 웃을 일 생긴다. **82년생** 친구의 고민 나누는 카운슬러가 되라.

돼지 — **47년생** 파격보단 안정에 무게 두라. **59년생** 잃었던 꿈을 되찾는 격이다. **71년생** 외부 압력은 피하는 게 상책~. **83년생** 사람 감시할 일 생긴다.



10일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AFC 호주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한국 대 오만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이청용. /연합뉴스

‘슈틸리케호’ 부상 경계령

아시안컵 오만전서 김창수·이청용·조영철 교체… 심하지는 않아

2015 호주 아시안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대회 초반부터 부상주의보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10일 캔버라에서 열린 오만과의 A조 1차전에서 한국은 교체카드 3장을 모두 부상자 때문에 썼다.

이날 경기에서는 오른쪽 풀백 김창수(가시와 레이솔), 오른쪽 윙어 이청용(볼턴), 최전방 공격수 조영철(카타르SC)이 다쳤다.

조영철은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기본으로 구사하는 제로톱 전술의 핵심요원이다. 이청용도 한국 공격진에서 두 말이 필요 없는 핵심요원이다.

다른 오른쪽 풀백으로는 차두리(FC서울)가 있지만 그도 최근 무릎을 다쳐 컨디션이 난조다. 이 포지션을 메울 다른 선수는 없어 김창수의 부상은 상당한 우려를 샀다.

11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다행히 이들 선수의 부상은 우려보다 심각하지 않다.

오만과의 경기에서 김창수, 이청용이 다친 것은 기술력이 부족한 오만 선수들의 과격한 태클 때문이었다. 조별리그 돌파를 목표로 삼고 사활을 거는 쿠웨이트전을 앞둔 만큼 부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상 외에도 경고 누적이나 퇴장도 조심해야 한다. 핵심요원을 기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경고가 두 차례 누적된 선수는 두 번째 경고를 받은 뒤에 열리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도 다음 한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다만 경고 한 장은 8강전이 끝나면 소멸돼 4강 이후 경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국은 10일 오만과의 A조 1차전에서 다행히 선수 23명 가운데 아무도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를 받지 않았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2015 호주 아시안컵 축구 조별 순위

A조

순위	나라	승	무	패	승점	골득실
1	호주	1	0	0	3	3
2	한국	1	0	0	3	1
3	오만	0	0	1	0	–1
4	쿠웨이트	0	0	1	0	–3

B조

순위	나라	승	무	패	승점	골득실
1	중국	1	0	0	3	1
2	우즈베키스탄	1	0	0	3	1
3	북한	0	0	1	0	–1
4	사우디아라비아	0	0	1	0	–1

C조

순위	나라	승	무	패	승점	골득실
1	아랍에미리트	1	0	0	3	3
2	이란	1	0	0	3	2
3	바레인	0	0	1	0	–2
4	카타르	0	0	1	0	–3

<11일 현재>

‘최약체’ 쿠웨이트, 다득점 노려라

13일 오후 4시… 골득실 만회 기회 삼아야

2015 호주 아시안컵 조별 리그 첫 경기에서 오만을 1-0으로 꺾은 한국 축구 대표팀이 기세를 몰아 쿠웨이트와의 경기에 나선다.

한국은 오는 13일 오후 4시(한국시간)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쿠웨이트와 대회 A조 2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오만과의 1차전에서 승리해 호주와 같은 승점 3을 쌓았다. 호주에 패배한 쿠웨이트와 오만은 똑같이 1패로 승점 0을 기록 중이다.

한국은 쿠웨이트와의 2차전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골을 뽑아야 조 1위로 9강에 진출할 수 있다. 호주가 쿠웨이트를 4-1로 완파해 골득실에서 +3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쿠웨이트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25위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16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아시안컵 출전 16개국 중에서는 북한(150위)을 제외하고 FIFA 랭킹이 가장 낮다.

지난 9일에 있었던 호주와의 개막전에서도 쿠웨이트는 선제골을 터뜨린 뒤 내리 4골을 내주며 대패했다. 호주 공격수들과 미드필더들의 측면 공세에 수비조직력이 속절없이 와해됐다.

한국과의 A조 2차전에서도 호주전과 비슷한 라인업으로 나설 전망이다. 꼭 이겨야 하는 한 판인 만큼 공격수를 최전방에 포진해 공세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스트라이커 유세프 나세르(25·카즈마SC)를 경계해야 한다. 아시안컵 예선에서 5경기에 나와 3골을 터뜨린 에이스로 빠르고 골 결정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쿠웨이트와 9승4무8패로 역대 전적에서는 호각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대결인 2012년 2월 브라질 월드컵 예선에서는 이근호, 이동국이 골을 터뜨려 2-0으로 승리했다. /장병호기자



10일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AFC 호주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한국 대 오만 경기에서 승리한 한국 대표팀이 관중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틸리케 “캡틴 기성용 베리 굿!”

울리 슈틸리케(사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기성용(스완지시티)에게 주장완장을 채운 것을 흡족하게 여겼다.

슈틸리케 감독은 11일 호주 캔버라의 매켈러 파크에서 “기성용이 주장의 책임감 때문에 임무를 더 충실하게 수행하더라”며 “기성용이 공격 성향도 있는데 어제는 뒤로 물러서면서 전체 전열의 밸런스를 잘 잡아줬다”고 말했다.

기성용은 10일 오만과의 2015 호주 아시안컵 A조 1차전에서 주장으로 선발 출전해 90분 동안 맹활약했다. 선수들의 사기를 끝까지 잘 다독였고 그라운드를 양분하듯 가로지르는 킬러 패스로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플레이도 자주 선보였다.



슈틸리케 감독은 “젊지만 경험이 풍부한 선수라서 다른 선수들과 달리 첫 경기에 긴장하는 기색도 없이 안정적으로 수준급 경기를 펼쳤다”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mjkim@

배상문 11언더 공동선두

PGA 현대토너먼트 2R



배상문(29·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현대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둘째 날 공동선두로 올라섰다.

배상문은 11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팔루아 리조트의 플랜테이션 코스(파73·7411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잡아 4언더파 69타를 쳤다. 중간합계 11언더파 135타를 친 배상문은 전날 단독 2위에서 공동선두로 올라섰다.

배상문과 같은 공동 선두에는 디펜딩 챔피언 잭 존슨(미국), 지난해 3승을 거둔 지미 워커(미국), 지난해 혼다 클래식 우승자 러셀 헨리(미국)가 자리했다.

한편 이날 3타를 줄인 노승열(24·나이키골프)은 중간합계 5언더파 141타로 공동 18위에 올랐다.

/김민준기자

프로농구 올스타전 전적 11일

시니어매직	23	18	29	31	**101**
주니어드림	23	28	29	25	**105**

프로배구 전적 11일

삼성화재	3	0	대한항공
KGC인삼공사	3	1	흥국생명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100%
천연암반수
천연미네랄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